

5000년 한국의 역사를 지켜온 유산 산성의 나라, 대한민국



상당산성
상당산성은 삼국시대 백제의 상당현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둘레가 4km나 되는 거대한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남한에만 1200곳의 산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5000년 역사의 한반도를 지켜온 산성은 적을 방어하기 쉬운 천혜의 요충지를 제공해 왔으며, 그 중 신라가 집요하게 차지하고 있던 충북지방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성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산으로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강줄기는 물론, 멀리서 다가오는 적의 움직임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의 형태에 따라 산봉우리를 감싸고 두른 '테피식' 과 계곡을 끼고 산자락을 둘러싼 '포곡식' 등 산성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담아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온 유적이 되었습니다.

유홍준 교수는 "산성은 국방상의 기능에 충실한 축조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유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성은 방치된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토성은 유실돼 희미한 자취만 남았고, 석성은 무너지고 흘러내려 텅골고 더러는 여염집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산성은 우리 선조의 용맹함과 지혜가 담긴 유적지입니다. 5000년 한국의 역사를 지켜온 산성으로의 답사는 바로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는 또 하나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Cover Story



강원도 평창 도시사의 '곤드레밥'

평창문화원은 '어르신이 사라지면 음식들도 영영 사라진다'는 아쉬움에 2011년 옛 음식을 복원하고 남기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소박하지만 한국의 정이 담긴 '산골밥상' 이야말로 세계 속에 빛날 가장 한국적인 지역문화일 것이다.

우리문화

등록번호 서울라2184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홈페이지 www.kcct.or.kr 전화 02) 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 오용원 편집위원 김중, 한춘섭, 곽효환 기획·디자인·활형 북아프리에 02)2266-7179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Spring 봄호 2013 Vol. 238 Contents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e Center

Special Theme _ 지역문화의 숨결을 찾아서

Story 1	한눈에 보는 지역문화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	04
Story 2	뿌리깊은 지역문화, 피어나는 문화융성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계획 발표'	06
Story 3	2013 지역문화 공모사업을 소개합니다 ① 청소년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②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10
Story 4	지방문화원 전략플랫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4
Story 5	새 정부 키워드로 보는 '문화융성과 지역문화'	18

사람, 지역을 잇다

이슈, 공감	문화예술 활성화,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	24
지역문화 지킴이	원촌마을, 역사문화체험으로 마을을 살리다	28
세대를 잇는 우리문화	세모시 옥색치마 입듯,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입다	32
온고지신 리포트	전통을 고수한 장인정신, 200년 代를 잇는 가업이 되다!	36

문화, 세계를 잇다

세계교감, 우리문화	태권무무 '달하', 그리고 전통예술의 세계화	42
세계는 지금	연합회연수단,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방문기	46
월드클래스, 한국	그윽한 향기로 천년을 사는 '꽃담장과 취빙'	50

우리, 문화를 잇다

문화원 소식	2013년 상반기 지방문화원 신입원장	52
행사 캘린더	5/6월 지방문화원 행사 캘린더	53
전문가 논단	향토사 연구 논문 연작④	56

‘문화역사마을’ 지킴이로 찬란한 역사를 지켜가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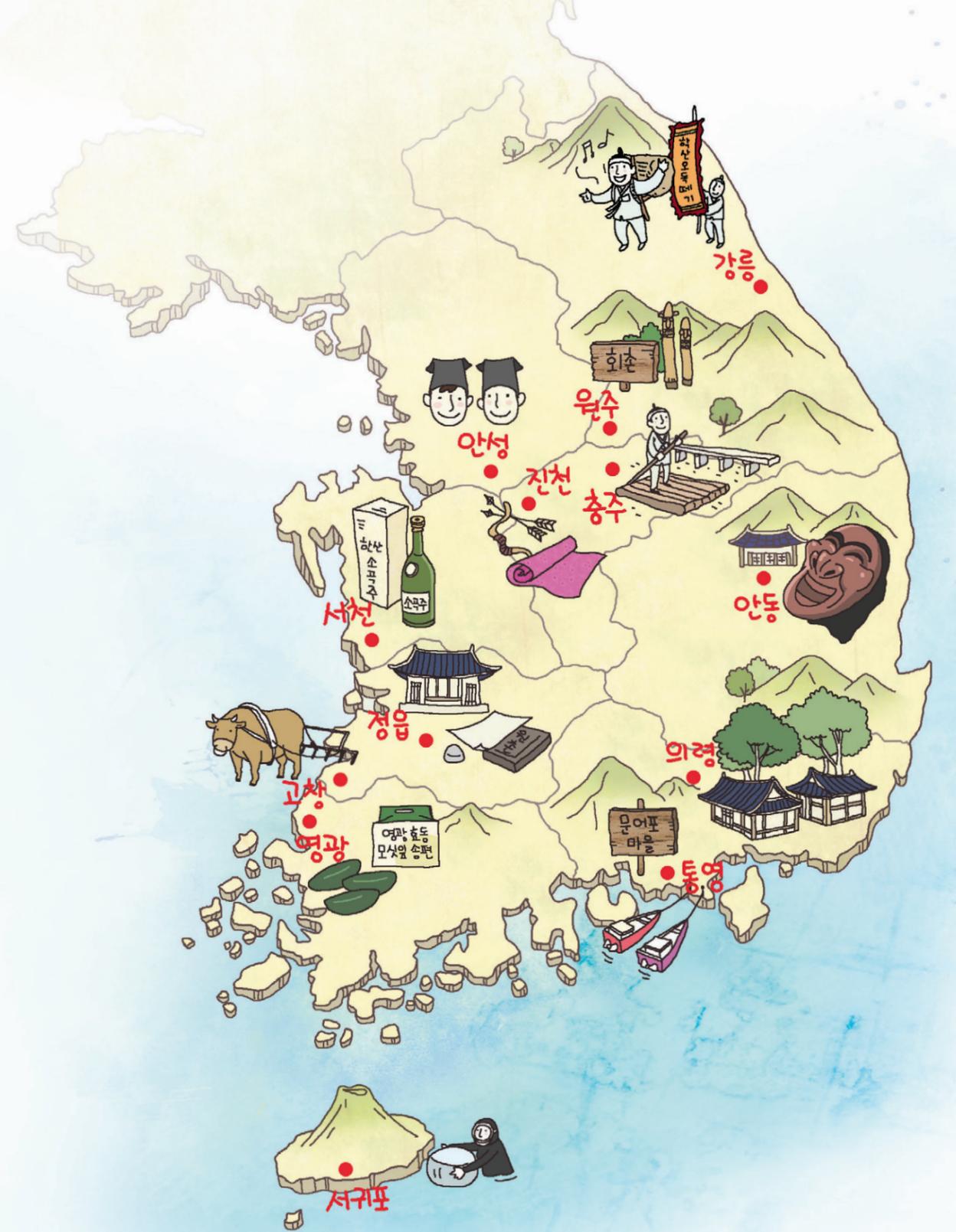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삼화 이은미
정리 편집부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지켜가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 13개 ‘문화역사마을’을 선정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는 사업이다. 마을은 살아나서 좋고, 사람들은 살아있는 역사를 배울 수 있어 좋은 대한민국의 ‘문화역사마을’을 찾아가보자. (본지 p32 참고)

전국 13개 사업 참여 마을

- [경기 안성] **덕봉마을** 선비문화체험
- [강원 원주] **화촌마을** 토지문화관, 매지농악 및 민속놀이 체험 등
- [강원 학산] **학산마을** 오독떼기(노동요), 강릉단오놀이체험
- [충북 충주] **목계마을** 목계나루탐방, 선유줄불놀이, 목계별신제 등
- [충북 진천] **보련마을** 국궁 및 전통염색체험, 웰빙산촌밥상 등
- [충남 서천] **동자북마을** 소곡주 빚기 체험
- [전북 정읍] **원촌마을** 전통한옥체험, 대동천자문배우기 및 탁본체험 등
- [전북 고창] **사동마을** 자연 및 갯벌 체험, 선운사검단선사보은염선제등
- [전남 영광] **효동마을** 소달구지 마을체험, 모싯잎 송편 만들기 등
- [경북 안동] **군자마을** 고택음악회, 안동탈춤체험, 군자정식, 안동뚝구축제 등
- [경남 통영] **문어포마을** 전통어로문화체험, 대나무소원배 만들기 등
- [경남 의령] **입산마을** 자연체험학습, 입산문화역사관, 신반한지축제 등
- [제주 서귀포] **법환마을** 쯤녀(해녀)문화체험 등





취재 김기일
사진 정지용(북아프리에)

5월 3일,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오용원·이하 연합회)가 영등포문화원에서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 즉 풀뿌리 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지방문화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창조경제시대 '문화융성'으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길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소박하지만 큰 걸음에 주목해 보자.

지역문화 활동의 매개자로 촉매자의 역할을 해 온 기초단위의 지방문화원이 '문화융성'의 핵심 단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3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역문화발전의 선도자 역할 수행을 위한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뿌리깊은 지역문화 피어나는 문화융성'이라는 타이틀로 출발한 이날의 행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신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뿌리깊은 지역문화 피어나는 문화융성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계획 발표

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계획과 함께 지방문화원의 대표적인 성과발표에 이어 '장관과의 대화' 시간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더욱이 이날 자리에는 강원도 평창 도사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 주신 '도사리 산골 밥상'으로 참석자들이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의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을 비롯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 및 영등포구청장과 구의장, 경찰서장, 문화정책관련 기관장과 연구소장, 문화관계자가 참석해 당일 중장기계획 실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문화 SPRING 2013

06 / 07



- 01. 입구에서 유진룡 장관을 환영하는 오용원 회장
- 02. 행사 축하를 일리는 해금연주
- 03. 식전행사를 열정적으로 열어준 '비보이' 공연
- 04. 한국문화원연합회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오용원 회장
- 05.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적 지원 약속을 약속하며, 지방문화원의 노력을 부각하는 유진룡 장관
- 06. 행사 후 오찬으로 준비된 평창군 도사리 '산골마을' 자연밥상



문화원을 방문해 축사를 발표하는 유진룡 장관(문화체육관광부)

현대사회 난제를 해결할 '지방문화원의 역할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이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최일선에서 문화 발전의 풀뿌리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민의 애환과 고티락을 문화자원으로 승화시켜, 기록하고 보존해 온 지방문화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고령화시대, 다문화시대야 말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전국의 문화원이 축적한 향토문화콘텐츠는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자 한류의 모태임을 강조', 당일 발표되는 중장기 계획에 담긴 지방문화원의 꿈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이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염동열 의원은 "평창문화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창출된 가치에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지역문화가 한국문화 성장 동력에 큰 거름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인사 했다. 이어서 전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은 "문화가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행복하고, 대한민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세계 속에 내 보일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가자."고 이야기 했다.



염동열 의원(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선규(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계획(2013년~2017년)

이어 한국문화원연합회 오용원 회장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길과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문화자원아카이브 구축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문화원에 산재해 있는 160만여 점의 지역문화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통합적으로 수집·보존·서비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문화진흥센터' 건립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는 미래의 전통문화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기술, 전통양식, 생활문화 등을 발굴하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잔치'를 개최하고 '향토문화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문화귀촌사업을 통해 지역문화활동가를 발굴한다. 문화귀촌 의사를 가진 청년 인재를 모집하여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컨설팅하며, 파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는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다문화교육을 넘어선 상호문화융합 사업을 실시한다.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목표 하에 다문화가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중문화 활동가를 양성하고 상호문화교육 추진, 주민워크숍 개최, 편견 없는 마을 선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방문화원과 외국 주민단체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229개 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교류, 문화통신사의 파견과 해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고창식 원장(평창문화원) 허준구 사무국장(춘천문화원)

평창문화원과 춘천문화원 성공사례 발표

먼저 평창문화원 고창식 원장은 "문화원장의 역할은 옛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옛 것을 가지고 오늘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문화원이고, 문화원장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숨겨진 문화를 외부로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소통의 창으로 역할에 충실한 것을 성공 요인으로 봤다. 이어 음식과 잊혀져가는 이야기를 묶은 <자연은 밥상이다>라는 책 제작과 도사리표 밥상 체험, 중요 일간지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추진 과정을 외부로 홍보한 사례를 발표하며, "좋은 보석이 있어도, 밖으로 내놓지 않으면 모르겠"이라며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이야기 했다.

이어 발표된 춘천문화원의 '향토 자료 관리 및 활용' 사례 발표에서 허준구 사무국장은 "향토자료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수준을 높여주는 무엇보다 귀중한 바로 메타이며,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사업이 가능했던 것도 지역의 향토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해서 축적된 기초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향토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통한 지역전통문화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별 아카이브 구축과 동시에 지역문화가 주민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만 문화융성이라는 큰 주제에 부합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문화융성을 위해 지역문화를 더 살릴 터, 질의응답

이날 질의응답시간에는 향토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관' 구축에 대한 예산 책정의 질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원 사업의 확충'을 요구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은 "오늘의 발표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자료관 구축 등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설립에 대한 예산 책정을 부탁드립니다"는 질문에 유진룡 장관은 "오늘 발표한 자료 모두가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단, 일률적인 지원책정이 아닌,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고 열심히 과제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문화원에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했다.

이어 김민경(인천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1년) 학생은 "자신도 무주문화원의 다큐사업에 참여해 수상을 한 경력으로 대학에 수석 입학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이야기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 사업들이 성인 대상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애乡심을 가지고 자신의 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는 요청에 오용원 회장은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창의교육 실현을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짜서 청소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의 자리는 지방문화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과 함께, 진정한 풀뿌리 문화를 융성시키는 그 중심에 지방문화원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 지방문화원은 젊은 문화원, 소통하는 문화원,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는 문화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풀뿌리 지역문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는 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해 갈 것을 다짐했다.



김민경 학생(인천재능대학교 1년) 한춘섭 원장(성남문화원)



평창군 도사리 '산골마을 자연밥상'을 준비해온 어르신들과 함께한 유진룡 장관

지역문화 공모사업으로 어르신에게는 활력을 청소년에게는 꿈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 공모사업

‘문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백범 김구 선생은 말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문화 사업은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흠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 구심체가 된 것은 물론 잊혀진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오면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올해 진행 될 ‘청소년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과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두 가지 공모사업을 소개한다.



공모사업 ① 청소년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지역문화, 청소년의 창의성으로 다시 태어나다!



〈우주문화원〉 청소년들에게 고장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 확립을 돕는 우주고등학교 '향토사대중화사업' 수업과 개강식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07년부터 전국 지방문화원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기 고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원이 공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청소년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구 향토사대중화사업)’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2013 청소년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지역의 문화, 역사 인물 등 기존에 발굴된 자원이 청소년들의 재기발랄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만나 새롭게 해석되어 다양한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머리로, 가슴으로, 몸짓으로 배우는 ‘내고장 알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 밖 자신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삶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들의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5일부터 29일까지의 공모를 통해 총 85개의 사업 중 심사를 통해 최종 35개 지방문화원이 사업에 선정됐으며 300여 개 초중고에서 3천 7백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남구문화원의 「처용비보이」, 세종문화원의 「만화로 그려보는 세종의 문화관광 테마코스」, 영암문화원의 「할아버지와 함께 엮는 우리고장 문화예술이야기」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문화의 현대화, 장르의 다양화, 세대 간 소통 등을 구현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추진될 청소년지역문화 창조 프로그램

- 1. 통합체험프로그램** :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제작 교육, 지역문화자원조사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참여 18개 문화원)
- 2. 통합교과프로그램** : 학교교과(영어, 미술, 음악, 역사)와 지역문화를 연계한 통합교과 프로그램 운영 (참여 13개 문화원)
- 3. 기획 프로그램** : 동일 문화권내 공통주제 프로그램 운영, 전문계고와 함께하는 통합체험프로그램, 초등학교 부교재 발간 사업 (참여 4개 문화원)

공모사업 ②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행복한 인생 2막을 열다!



01 <광주서구문화원> 어르신들의 문화예술배움터 '어르신 문화학교' / 02 <전남화순문화원> 이수자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2005년 10개 문화원에서 시행된 실버문화학교('05~'09)를 시작으로 그 기반을 다져온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올해로 9년째를 맞으며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은 '05~'08년 복권기금 지원에서 2009년부터 일반회계 국고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어르신 문화예술정책의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꾸준히 변화·발전되어 왔다.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참여 어르신을 교육 수혜자에서 더 나아가 문화향유자이자 창조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교육을 받는 것 외에 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재능기부와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어르신 참여자가 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의 큰 성과 중 하나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3월 5일부터 22일까지의 공모를 통해 전국 지방문화원으로 부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을 접수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총 309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09개의 프로그램은 전국의 193개 문화원에서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어르신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권리보장과 지역 문화격차 해소라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동 사업에 참여하여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골든에이지 캠페인'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골든에이지 캠페인'은 바로 동 사업을 통해 구현되는 어르신 세대의 문화예술에 기초한 삶의 변화, 즉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과 어르신 세대에 적극 알리는 내용이다.

이는 동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노인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단위사업 소개 및 대표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문화예술배움터 어르신 문화학교(152개 프로그램)

어르신의 예술적 욕구, 학습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악기, 연극,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맞춤형 교육

<광주서구문화원> "꿈꾸는 어르신, 시와 동화에 물들다Ⅲ"

문학을 주제로 시와 동화, 낭독과 낭송, 동화구연에 이르기까지 3년 차 심화과정에 부합되는 다양하고 촘촘한 교육과정 설계. 향후 이수 자강사파견 혹은 봉사단, 동아리활성화 등으로 사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봉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연차별 사업발전의 모델이 되는 프로그램.

이수자 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5개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학교를 수료한 이수자강사가 유치원, 학교, 마을회관, 요양원 등에 찾아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펼침.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전남화순문화원> "세계문화유산의 고장 화순문화역사 알기"

지난 2006년 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2011년부터 올해로 3년째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 시행. 어르신이 교육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강사가 되어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문화예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이수자강사파견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지방적 문화 활동의 공간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43개 프로그램)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및 전시, 출판과 봉사활동 등의 문화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문화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경기가평문화원> "생생 실버무용 동아리"

동 프로그램은 어르신문화학교에서 출발해 봉사단, 현재 동아리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문화활동과 보람 있는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공연 봉사활동을 지원함. 이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발전전략과 선순환구조(문화학교-봉사단-동아리)에 부합하는 표준 모델이 되는 사업임.

전문 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28개 프로그램)

문화 소외지역과 시설 등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어르신 대상 예술장르 맞춤형 교육

<대전대덕문화원> "이현동 다육도자 어르신협동문화학교 운영"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특색 있는 환경을 활용한 식물 재배, 화분(도자)만들기 등 미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주변 환경을 활용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의 수익창출과 연결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 바람직하며, 향후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의 사업 발전이 기대되는 프로그램.

배움에서 나눔으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70개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학교를 수료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써, 소외시설과 지역 축제 등을 찾아가 문화학교를 통해 배운 것을 이웃과 다시 나누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천

<서울성북문화원> "나눔이 있는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흥낙"

연극을 주제로 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방법(이론교육, 감정표현,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감성을 깨우는 동시에 고유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이를 극으로 재탄생시킴. 어르신문화학교 연극교실로 시작하여 올해 봉사단으로 단위사업을 전환한 프로그램으로써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선순환구조의 모델이 되는 사업.

우리의 것이 좋은 것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11개 프로그램)

어르신이 간직해 온 생활문화(지혜와 경험, 풍습, 공동체 문화 등)를 발굴, 발전시켜 세대간·지역간 교류 및 전승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전남진도문화원> "노 저어라 뱃놀이 가자"

진도문화원의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은, 2011년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법'에 의거, 진도군으로부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3월 동 사업이 전라남도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타 사업에 좋은 본보기가 됨.

31개 지방문화원을 빛내는 전략 플랫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문화원연합회의 정체성을 그려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찾아서

빨리 가기 위해 혼자 걸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먼 미래를 보았을 때, 과연 누가 현명한 사람일까? 물론 답을 할 필요도 없이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걷는 사람일 것이다. 지역문화예술의 성장을 위해 누구보다 힘을 모아야 할 지방문화원이 뿔뿔이 흩어져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감지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는 31개 지방문화원과 함께 3개년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 지역문화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취재 김기일(북이뜨리에)

1년간 경기일보에 실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추진사업 관련 기사를 모아서 만든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지>



3개년 사업의 우선과제로 31개 지방문화원과 네트워크를 시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1년, 더 이상 홀로 서는 지방문화원은 없다!

해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부정책의 특성상, 성과를 발표해야 할 때면, 누구보다 바쁜 매일을 보냈음에도 당장 내놓을 것이 없어 고민이라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회장 정상중·이하 도연합회)의 즐거운 속사정이다.

2011년 도연합회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지방문화원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3개년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매년 목표한 바대로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만약 도연합회가 눈에 보이는 행사만을 위주로 했다면, 보여줄 수 있는 성과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도연합회는 당장의 성과보다 31개 지방문화원과의 네트워크를 우선으로 생각했다. 지방문화원이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단과 결합해 진정한 지역문화의 성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점차 약화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위치를 감지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연합회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문 속에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는 듣는'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



도연합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3년 전 도연합회가 지방문화원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처음 시도한 것은 경기도내 31개 지방문화원을 도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나 된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무조건인 정책을 내리기보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방법을 선택했다.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경기도 또한 급격한 마을 해체와 새로운 도시 형성에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은 제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그 속에 지방문화원들은 행사를 위주로 활동하다 보니, 바쁜 속에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 급급했고, 문화재단이나 예술기관과 손을 잡고 큰 프로젝트를 시도하려해도 힘이 실릴리 만무했다. 그야말로 지방문화원은 힘겨운 도전의 연속으로 힘들어지고, 도연합회는 갈 길을 잃어 설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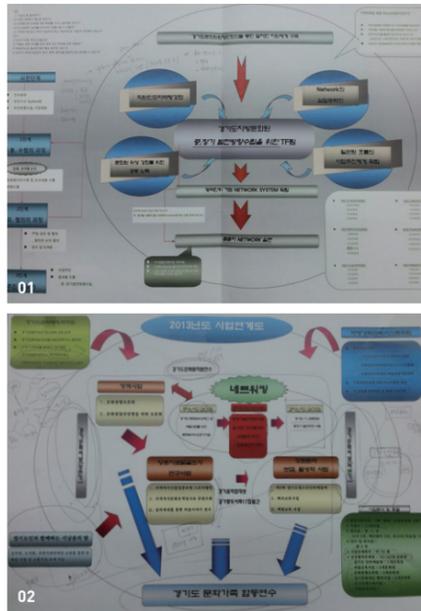
이런 상황을 감지하기 시작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연합회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문과 반성 속에 지방문화원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정으로 지방문화원이 빛나기 위해서는 도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는 결심으로 한 곳 한 곳을 방문해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을 시작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각 지방문화원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후,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밀

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아 수행하자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갔다. 이에 도연합회는 각 지방문화원 소통의 구심체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사업 방침을 세웠다"고 정상중 회장은 말한다. 이처럼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스스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원으로부터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경기도내 31개 지방문화원을 빛내자!

도연합회는 가정 먼저 '사업연계도' 를 그렸다. 즉 도연합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작업이었다. 기존의 4개 책 발간 사업에 2개 문화 행사를 주최했던 도연합회의 사업을 분석, 이를 세분화하고 추가 확대해 재배치했다. 그 중심에 '네트워킹 사업' 을 세웠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을 지닌 각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2011~2013년 3개년에 걸친 네트워크 사업 계획에 따라, 첫 해 경기도 문화원 위상제고 및 역할강화를 위한 문화육구수요조사사업을 벌였다. 학자와 전문가의 공허한 주장 대신, 각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실무진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각 지역의 다름을 인정하며 맞춤형 발전 방향을 세우는 초석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과 법제의 시스템화', '문화예술교육', '축제와 문화사업', '향토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4개 키워드를 뽑았다. 네트워크 사업 2차년도인 2012년에는 지방문화원의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4개 분과의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했다. 드디어 2013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밑에서부터 올라온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연합회는 또 이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 정책사업, 향토



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재정적 낭비다. 이제는 저장되고 관리된 향토자료를 제 2의 가공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의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향토자료발굴조사연구 사업을 문화원 본연의 역할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정상중 회장은 강조해서 말한다.

또 향토문화보급 및 활성화 사업은 도연합회가 지방문화원의 협업을 토대로 행사와 교육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광역단위에서의 효과적인 보급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도연합회는 실무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민도 볼 수 있는 홍보 창구 <경기문화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각 사업의 성과보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사업이 도연합회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긴밀한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연계사업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도연합회는 전체 사업 11개에 협력문화원이 20여개에 달한다. 이들이 가진 회의만도 연간 70회 이상이다. 처음에 '왜' 라고 시큰둥하게 반문했던 지방문화원은 이제 스스로 협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발굴조사연구사업, 향토문화보급, 활성화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정책사업은 문화원형 토론회와 문화원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로 구성, 문화원 사업의 의미와 추진 방침을 모색했다. 실제로 2011년 도내 문화원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연결시키는데 합의해 2012년에는 이 콘텐츠를 구체적인 사업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처럼 첫 해는 교육과 세미나, 협의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하나의 마음을 모으다 보니 그 뒤로는 진행되는 일들은 수월하게 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아카이브 사업'이 우리의 갈 길이다!

최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향토사자료발굴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관련 기관들이 하나의 사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지만, 한번 조사한 자료는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야말로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한 이후, 조사자료는 버려지고 다른 기관은 또 다시 만들고를 반복하

1~2. 도연합회의 역할 정립을 위한 '사업연계도(위)'와 '중장기 발전방향수립을 위한 TF팀(아래)' 구성도
 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시낭송의 밤'에서 발표 중인 정상중 회장
 4. 리허설부터 본식까지 지역관계자 모두가 '문화의 힘'을 직접 체험하도록 꾸며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시낭송의 밤'



지방문화원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도연합회는 2013년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 5개년 계획을 3회에 걸쳐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거침이 없는 도연합회의 활약은 매주 발간되는 경기일보에서도 만날 수 있다. 경기일보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던 소식이 신문의 전체를 차지하면서 경기도의 지방문화원이 문화를 통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다양한 행사소식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탬으로써, 경기도민의 자부심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에는 1년간의 기사를 모아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문화원을 빛나게 하기 위해 도연합회가 발로 뚫은 노력은 최근 다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도연합회가 역할을 찾아가자, 지방문화원도 자연스럽게 도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실시되는 사업들 마다 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정상중 회장은 "우리 도연합회가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문화원간 연결고리가 되자 자연스럽게 지방문화원도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각각의 정체성과 임무를 고민하고 더 명확해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한다.

도연합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면서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이제 도내 31개 문화원이 장기간 함께 고민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현실에서 풀어내는 일이 남은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걸어가면 된다. 하지만 멀리가고 싶다면,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멀리 가는 사람이 오래 가듯 말이다. ☺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1개 지방문화원이 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일의 성과와 연결을 돕는다. 이로써 지역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게 되면서 지방문화원이 점차 빛을 내고 지역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새 정부 키워드로 보는 ‘문화융성과 지역문화’

문화융성을 실현해갈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의 길

2013년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뒤로 밀려있던 문화가 ‘문화융성’이라 하여 정부 정책의 전면으로 등장했다. 새 정부 국정비전과 함께 미래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 갈 지역문화의 길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글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새 정부의 화두 ‘행복한 국민’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열쇠말(key word)로써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그리고 ‘문화융성’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경제민주화는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 그 뜻이 명확한 것 같다.¹⁾ 이에 비해 또 다른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의미는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져 있다가²⁾,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기에 이르렀다.³⁾

아직은 국정시책을 요약한 키워드에 경제란 단어가 들어간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지난 이명박정부가 ‘747’이라 하여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제시한 있다. 그러나 전정부가 ‘국격’을 운운하긴 했지만 우리가 국격을 말하기에는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라 생각한다. 이는 경제를 단순히 ‘먹고사니즘’으로만 보거나, ‘7대강국’ 진입을 국격으로 착각한 데에서 드러난다. 그런 면에서 이정부에서 ‘문화융성’이라 하여 문화가 전면으로 등장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경제의 성장이나 국민소득의 증대는 결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행복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정부가 시대적 소명을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의 세 가지로 인식하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한 것은 경제 일변도의 지난 정권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 시대 무엇으로 풀어나가나?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말했다. 취임사에 ‘문화’가 19번이나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취임사에 등장한 ‘문화융성(文化隆盛)’이란 단어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4대 국정기조’로 정착되었다. 박대통령은 문화융성과 관련해 “21세기 가



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⁴⁾라고도 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번 대통령 취임사 이전에는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쓰인 적이 없는 것 같다. 문화융성이 의미하는 바를 대통령 취임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룰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취임사에 나타난 문화융성은 한편으로는 박근혜정부의 국가목표(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중 하나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의 지향성(‘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과 시대적 역할(‘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으로써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융성’을 ‘변영으로써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써의 문화’⁵⁾로 보거나, ‘문화가 융성한다는 의미와, 문화를 통해 국가가 융성해진다.’⁶⁾로 보는 견해들이 있지

•각 주

1) “국회 문턱 달도록 된 경제5단체...결국 법안 2개 제동 걸었다” (경향신문, 4월30일)
 2) “융합이나 상상이나 해석 제각각.. “창조경제 헛갈리네” 머리싸맨 기업들” (2013.03.24, 국민일보/미디어다음), “輿의원을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나” 유민봉에 호통” (2013.04.01, 동아일보/미디어다음), “창조경제, 미래부장관 후보(최문기)도 잘 설명 못했다” (2013.04.02, 조선일보/미디어다음)
 3) 대통령은 ‘창조경제’ 논란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이동연, 문화정책의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대안을 준비하는 문화정책 포럼>(3.27) 자료집, 문화연대.
 6) 양건열, 문화융성의 의미-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사례를 중심으로, <KCTI 가치와 전망>제17호(2013.4.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차대통령 본격 국정드라이브...” 국정철학공유 강조”(2013.03.18, 연합뉴스/미디어다음)

만 문화용성이 이러한 양면성을 갖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화용성의 이러한 양면성은 당장은 병행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목표와 문화의 지향성, 혹은 번영과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사이에서 어느 한 쪽(특히 전자인 국가목표, 번영)에 중점이 두어지게 되면 - 특히 국가정책의 기본적인 속성상 전자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후자를 강조하는 쪽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이는 어쨌거나 MB정권 세력의 연장(재집권)인 박근혜정부의 '정치'와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 사이의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혹은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실제 정책이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를 것이다. 나아가 '국민대통합'을 위해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나선다면 문화의 창조와 표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용성을 실현해 갈 문화정책은 무엇인가?

문화용성이 국정의 기조로 자리 잡았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문화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또 문화부의 문화정책은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과 이에 바탕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리하여 제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의해 그 방향과 틀이 지어지게 될 것이므로 '국정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수위는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서 5개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세 번째 국정목표로 제시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세 가지 추진전략 중 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7개 국정과제 중 체육 분야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을 제외한 6개 과제와 주요 추진계획 중 지역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오른쪽과 표와 같다.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 국민 문화행복지수를 개발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폐산업시설과 舊군사시설의 문화·관광 공간 재조성 ● 예술분야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주민센터,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 ● 문화114 콜센터 운영 및 문화복지사 지역별 배치 ● 은퇴계층을 위한 골든에이지 캠페인과 자원봉사 기회 제공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역문화재단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 ● 지역 상주단체 육성 및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대폭 확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정신문화 진작 ●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 지역관광협의회설립을 지원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 (생태휴식공간 확충) 국가도시공원, 동네쉼터, 도시농업 공간, 생활권 마을숲, 생태놀이터 등 도심 생태휴식공간 확충 ●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 높아진 국가 위상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품격이 흐르는 도시·건축문화 형성 및 국토경관축 조성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문화용성에 달려있다. 그러나 문화용성을 국가정책에만 맡겨두면 국민행복보다는 국가번영에 치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삶의 터전이며 생산지인 지역문화야말로 국민행복의 실질적 지표가 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자신의 시대적 소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임. 이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겠다."⁷⁾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고 했다. 행복의 요건은 대개 일치한다는 이야기이다. 일찍이 예수님도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셨으니, 빵이 행복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먹고(食), 입고(衣), 자는(住)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도 품위 있게 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품위 있는 삶을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삶이란 문화가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빵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라면 충분조건은 문화이다.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문화용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문화용성을 국가정책에만 맡겨두면 국민행복보다는 국가번영에 치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의 실제 삶의 터전에서 생성되는 지역문화야말로 국민행복의 실질적 지표가 될 것이다. 국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그를 넘어서는, 정책의 한계와 왜곡을 극복하는 현장의 실천이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7)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2013년 2월 21일)

사람, 지역을 잇다

“전통은 존중하는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된 영원한 진실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전통은 고정된 양식에서 벗어나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 고 프랑스 조각가 로맹은 말합니다.

현존하는 조선도에 기법을 잇는 유일한 가문인 백산 김정옥 선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을 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법을 고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작품의 완성도에 더욱 치중 했다”는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왕실도자의 기법이 100년을 넘어 90년까지 지지순손으로 그리고 세계로 이어지는 도자 가문의 예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글 양기민(노리단 경영전략실장)

문화예술 활성화,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

대한민국 1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노리단'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만나는 것은 단순 서비스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사례를 문화예술분야 첫 번째 사회적기업 노리단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 외에도 지역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주체와 모여 노리단을 함께 설립하고, 공간과 장소의 터전을 바꾸며 새로운 지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주고 있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현재

2013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801개로 2007년에 비하면 14배가 성장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영역도 확대되는 한편 아직 자생성에 대한 의문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관광, 운동)분야 사회적기업은 138개로 전체의 약 17.2%를 차지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이유도 있지만, 많은 예술단체들이 단체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방식을 고민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한 착한 기업'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성장과 변화를 하는 중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노리단은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 첫 번째 사회적기업이다. 노리단의 처음은 2004년이였다. 시작은 하자센터에 모인 10대, 20대, 30대들이 모여 재활용악기오브제를 활용한 아마추어 공연 프로젝트였다. 그러다 사회적기업이란 제도를 만났고 점점 기업의 모습이 갖춰져 갔다. 당시 하자센터는 많은 문화예술 및 청년, 청소년 자원이 모이는 '허브' (hub)기능을 하였다. 노리단은 수많은 사람, 조직과 네트워크하며, 공연단에서 점차 교육사업, 커뮤니티 디자인, 기획/행사 등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사람이 성장하듯 기업도 성장하고 성장의 과정에선 혁신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면서 고민도 사라지게 된다. 예전 노리단이 있던 하자센터는 영등포에 위치하였으나 '지역' 사업을 하는 곳이라 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상대적으로 영등포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2011년부터 노리단은 적극적으로 '지역'을 만나기 위한 결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넘어, 오히려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과 시민을 연계하는 역할 고리가 되어야 한다.

을 한다. 지역을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니, 자꾸 사업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내부의 반성 때문이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혜대상이나 지역, 그리고 성과가 양적인 것을 머물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들과 직접 만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과 만나기 위해 부딪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도한 프로젝트가 '구로로 마을축제', 'OO은 대학', '부산노리단', '본사의 부천 이젠' 등이었다.

지역 주민과 만나다

노리단은 하자센터를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새로 정착할 지역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 첫 번째로 만났던 지역은 서울의 구로였다. 당시 구로문화재단과 지하철 교각 아래에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roro 노리단 창작발전소'를 만들었다. 일본의 고가네초 사례처럼 지하철 아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이 창작하며 교류할 수 있는 지역거점을 만들었다.

거점을 만드는 것을 넘어 구로노리단이 위치한 구로 5동의 주민들과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구로노리단 근처는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유휴도로와 주변은 평범한 아파트촌이었다.

원종종합시장에서의 공연 모습





구로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로노리단'

이런 지역에 특색이 전혀 없는 동네에 지역주민들과 '구로로 마을축제'를 함께 기획하게 된다. 노리단의 역할은 축제를 만드는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며 판을 만들어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이었다. 1회에는 주민들이 먹거리장터 운영만 하는 소극적인 참여자였다. 하지만 노리단과 함께 한 경험을 통해 2회부터는 구로5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을 찾다

노리단은 사회적미션 중 하나는 '청년세대의 자립'이다. 청년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노리단은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OO은 대학'이다. 'OO은 대학'이란 OO안에 지명을 넣어 붙이면 된다. 마포는 대학, 구로는 예술대학, 부천은 대학 등등 다양한 지역에서 실현되었다. OO은 대학 운영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어디나 강의실이 될 수 있다'이다. 예컨대 20년간 부동산을 운영하신 지역주민이 청년들에게 방구하는 법을 알려 줄 수 있듯, 지역의 주민들이 강사가 되고, 그분의 일터, 생활터가 강의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생활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지역의 문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청년이 없고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 청년 기획자를 양성했다. 즉,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과 참여를 갖는 선순환 모델을 그린 것이다.

OO은 대학은 현재 노리단에서 독립하여 'OO은 대학 연구소'라는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며 따로 협동조합을 준비하며, 서울/경기 지역에만 10여개의 프로젝트로 활성화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여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의 복제 모델을 만든 사례로 볼 수 있다.

노리단, 지역에 터를 잡다

노리단은 서울과 수도권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노리단의 경험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든 곳이 부산형 사회적기업 '부산노리단'이다. 또한, 서울의 노리단도 2012년에는 서울을 벗어나 지금은 부천으로 이전하여 정착하고 있다.

지역에 내려와서 보니 서울에서 겪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중이다. 부산노리단은 서울과 다른 부산의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서울과 다른 부산에서 노리단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 하고 있다.

서울에서 노리단을 운영했던 경험과 부산의 자원들과 만나서 부산이란 지역에 알맞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새롭게 만드는 중이다. 부천에 정착한 (부천)노리단은 부천시와 직접 MOU를 맺으며, 부천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공간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노리단이 위치한 공간은 예전 야인시대 세트장을 철거한 지역으로 현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텃밭과 노리단이 위치한 가건물만 남아있다. 노리단은 앞으로 이 지역의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잘 만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은 본질적으로 기업이다.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노리단은 지역에 관심을 가지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만들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부천의 역곡북부시장, 원종시장 등 문화예술로 다양한 전통 시장들을 활성화하며 지역경제 이바지 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히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만나 새로운 문화예술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기업은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과 시민 사이를 연계하는 역할고리가 될 수 있다. 문화 복지의 패러다임은 문화예술을 지원으로 보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문화예술로 지역 안에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에 도전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원에 의존성이 높은 문화예술단체와 달리 문화예술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노리단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장소로 지역을 생각하며, 지역 주체들을 만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현재 진지하게 지역을 사고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기업 자체의 생존의 문제와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하는 것을 분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문화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목표로 사회적기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지역은 비즈니스의 공간이 아닌 수혜지역이라는 사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기존 자신의 장르 예술 기반에서 멈춰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한 문화예술 재능을 주민들에게 무료나 저가로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역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어렵고,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예술단체이나 여러 문화예술 개인 작가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적기업은 보다 문화예술을 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지역 안에서 비즈니스를 발생시켜 경제가 실물경제로 선순환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만날 때, 지역을 혁신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사회적기업 스스로도 지역의 만남을 통해 조직 혁신을 노력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성공할지 몰라도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 주체)들과 사회적기업의 동시적인 전환과 변화,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지 않으면 결코 잘 만날 수 없다. 사회적기업에게 지역은 자신의 활동 근반이자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공동체여야 하고, 지역에게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혁신에 앞장서는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



01



02

01. 부산형 사회적기업 '부산노리단' 공연
02. 지역 주민이 강사가 되는 'OO은 대학'

글쓴이 양기민은 노리단 경영전략실장으로 현재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 하자센터 기획 및 사단법인 씨즈(Seed's)에서 인큐베이터 활동 등 여러 조직에서 활동하며 활동하였다. 문화연구를 넘어 문화예술 실천을 통한 사회변화를 목표로 문화예술, 청(소)년,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영역과 접점을 만들고 있다.



01

글 배기택(디자인연구소 (주)이락 대표)

태산선비문화권 '원촌마을' '역사문화체험' 으로 마을을 살리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원촌문화역사마을> 탐방

꾸며지지 않아 더 소박하고 맛있는 음식 맛, 사골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색다르지만 한 한옥 숙박체험, 마을을 지키는 장승에 담긴 이야기. 살아있는 마을의 문화와 역사가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새로운 체험공간으로 탄생했다. 서원이 있어 원촌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 우리네 선비들이 글을 읽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조상을 소중히 하는 재래 등 의미가 담긴 체험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주민 참여로 더 즐거운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지난 몇 년간 우리 농어촌의 많은 마을들이 경제적 수익창출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숙박여건을 조성하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타 마을과 차별성 없는 상품들과 요란하지만 주민들이 운영하지 못하는 상품개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것도 사실이다. 마을이 보유한 자원의 특성을 살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운영가능한 프로그램들로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는 마을이 바로 원촌문화역사마을이다. 원촌마을은 마을에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해 이를 활용함으로써 타 마을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생활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이원화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뒤에는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산선비문화권의 중심 '원촌마을'

통일신라 말 고운 최치원이 태인 지역 태수로 부임하면서 전파한 유교가 정착되어 전라북도 지역에 특색 있는 유교문화를 형성하였는데, 이를 태산선비문화권이라 한다. 고려 말 가사문학의 효시로 이야기 되는 상춘곡(賞春曲)의 저자 정극인 역시 태산선비문화권에 속하는 문인 중 한명이다.

- 01. 다목적 체험관
- 02. 장승세우기 체험

이러한 태산선비문화권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 바로 원촌마을이다.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 정책에도 온전히 보존된 전북 유일의 사액서원인 무성서원이 마을에 있었고, 불우현 초막을 짓고 노년을 보낸 정극인을 비롯해 수많은 인물들이 원촌마을을 중심으로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탓에 최익현 등에 의한 병오년(1896) 의병창의가 원촌마을에서 거행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성서원 외에도 무성리 석불입상, 무성리 삼층석탑, 필향사, 한정, 송산사, 시산사, 송정, 후송정, 호호정유허비, 영성정, 정극인 묘역 등의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문화자원이 마을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탐방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탐방객들이 사전 연락을 통해 시간약속만 한다면, 마을 입구에 자리한 <태산선비문화사료관>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와 여러 자원들에 대해 안성렬관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직접 만든 여러 종류의 차를 경험할 수 있다.

소박해서 더 풍성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원촌마을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을 필두로 역사문화자원을 되살리는 노력을 거듭해 탐방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3종류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는 서원 고유의 기능 중 교육, 출판에 해당하는 체험으로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탁본(대동천자문), 대동천자문 강학, 향음주례(예절학습) 등이다. 둘째는 전통한옥인 다목적체험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옥체험(숙박)과 다도체험, 역사문화탐방 등이다. 셋째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생활문화체험으로 두부

02



만들기, 솟대만들기, 장승만들기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여름에는 인접한 물 테마파크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시원한 피서를 즐길 수 있다.

원촌마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다음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사료관 관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유학자들이 참여해 진행하고 주민들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생활문화체험은 주민들이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두부만들기 체험은 정읍시 첫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위생적이고 현대적 생산 및 포장설비를 갖추고 생산판매가 시작되어 고용 인력을 늘리는 감격을 맛보기도 했다.



복원 후 정비된 '필향사'

마을 운영조직은 크게 2개(주민자치위원회, 자문단)의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질적 마을운영을 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존 조직인 부녀회, 새마을지도자와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성이었다.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과 마을운영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고, 총무는 마을의 수익과 지출 등 마을운영기금관리를 담당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사무장 업무를 이장이 대신하고 있다. 원촌마을을 방문할 이들은 이장님에게 전화 연락을 하면 체험프로그램 상담과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마을에서 생산하는 메주, 된장, 복분자 등의 생산물들도 탐방객들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체험프로그램 운영수익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배분되고 있다.

- 첫째, 개인 인건비는 지역의 풍습을 기준으로 한다.
- 둘째, 체험프로그램의 수익 중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잔액 전액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한다.
- 셋째, 위탁운영 중인 매점 임대료는 해마다 마을에 지불하고 전액 마을기금으로 적립한다.
- 넷째, 마을운영기금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마을운영비로 지출하고 향후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한다.

○○○주민들이 만들어 더 특별한 이색체험



한옥의 품미 그대로, 숙박체험

가족 단위로 원촌마을을 방문한다면 이곳의 문화와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것은 물론, 시골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다목적 체험관은 작은방 2개와 큰방 1, 대청마루로 이뤄져 여름에는 25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단 봄, 가을, 겨울에는 계절의 특성상 9명만이 숙박이 가능하다. 그 외 경로당은 큰방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름에 20명,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10명이 숙박할 수 있다. 이외 마을회관에서 학술세미나나 농악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식사 경우 1인 6,000원에 푸짐하고 깔끔한 시골 밥상을 맛볼 수 있다.



탁본으로 배우는 대동 천자문, 탁본체험

먹을 묻히고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할 때쯤, 아이들의 환호가 이어진다~ 신기한 표정 속에 자신이 만든 탁본을 보며, 재미를 넘어 다시금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본다. 종전의 천자문이 중국 중심이었다면, 대동 천자문은 주체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조선말에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풍속, 속담 등을 기본으로 재정비한 글이다. 이런 대동천자문의 목각본을 탁본하고, 이를 서당체험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탁본은 원촌마을 체험의 소중한 기념품이 되고 있다.

탁본체험 : 50명~100명 참여가능, 1인 5,000원, 10일전 예약 필수



지친 심신에 좋은, 차예절 체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정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음미함과 동시에 봄이 코와 입으로 느껴지는 시간이다.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차예절 시간은 조금 어색하지만 이내 색다름으로 다가온다. 차는 우리 몸에도 좋지만 정신수양과 예절을 배우는 경험으로도 매우 좋다. 차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다도를 가지고 있다. 원촌마을은 마을의 자랑인 연잎차와 야생차를 한옥의 다도 체험관에서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재배한 연잎차 등 토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우리네 마을 지킴이, 장승세우기 체험

장승으로 세울 원목이 정해지면, 원목에 밑그림을 그리고 기계톱으로 윤곽을 잡아가며 생명을 불어넣고 정성을 다해 혼을 심는다. 이 과정을 통해 장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장군과 여장군으로 태어나게 된다. 마을입구마다 굳건하게 서있는 장승은 눈을 크게 부릅뜬 얼굴은 마을에 들어오는 역신이나 흉년 재앙을 몰고 오는 귀신들을 물리치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은 장승세우기나 제례 체험을 통해 지켜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물론, 잊힌 조상과 마을에 대한 생각을 만드는 시간이 된다.

장승세우기 : 50명~100명 참여 가능, 1인 5,000원, 10일전 예약 필수

제례체험 : 50명~100명 참여 가능, 1인 5,000원, 10일전 예약 필수



세모시 옥색치마 입듯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입다

충남 서산 인지초등학교 아이들의 한산모시 체험

파릇파릇한 꿈나무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자기 고장의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이 곧 우리나라를 지탱해 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를 몸소 체험하고 고장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서산의 인지초등학교 아이들이 충남 서천 한산면에 위치한 '한산모시관'을 찾았다. 하얀 눈송이처럼 목련의 꽃잎들이 피어나던 좋은 날이었다.



취재 정이슬 사진 정지웅(북아프리에)



한산모시에 대해 설명하고있는 한산모시관 김만자 선생님.

한산모시, 이것이 우리의 명품이다

5월이 지나면,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 날이 더워지면 몸에 걸치는 옷부터 거추장스러워지며 더 시원하고, 청량한 옷감을 찾게 된다. 여기에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모시다. 모시로 지은 옷은 무엇보다 통풍이 잘되기 때문에 시원하고 가벼우며 깔깔하고 산뜻한 맛이 일품인데, 이는 무명이나 삼베가 따르지 못할 만큼 우수하다. 모시원단의 실루엣은 우아하고 고전미 넘치는 전통한복과 다양한 디자인의 생활한복 뿐만 아니라 양장, 그밖에 생활 소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 그런 모시 중에서도 제일의 것을 꼽자면 충청남도 서천군 판산지역에서 나는 한산 모시다. 한산 모시는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기로 유명하여 바그룩 하나에 모시 한필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 생길만큼 결이 가늘고 고운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인 기품, 명장의 정신이 묻어나는 우리 모시

모시는 한자로 조(苧, 紵), 저포(苧佈), 저마포(苧麻佈) 등으로 불리고 우리나라 최초 문헌자료 삼국사기 신라에서는 '삼십승 저삼단을 당나라에 보냈다'는 모시에 관한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문헌 기록에서 저마는 대개 저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림유사에 고려방언으로 저왈저모(苧曰苧毛), 저왈모시베(苧曰苧施背)라 하여 오늘날 모시라는 명명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시가 외국에 알려진 기록으로는 고려 인종 때 찾아볼 수 있다.

송나라 사신 서공의 글에 '모시가 백옥처럼 희고 결백을 상징하여 뒷사람이 입어도 의젓함이 나타나고, 백저포로는 상복을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수요가 폭증하여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자 종종 때 신분별로 엄격히 세수를 제

한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직조 발달이 퇴보되었지만, 한산에서는 그 명맥을 유지하였고 일제 강점기 말에 이르러는 한산모시의 명성이 다시 전국에 떨치게 되었다. 해방 후 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68년 이후 섬유산업의 발달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한산모시는 품질의 우수성은 물론 역사적 가치가 높아 제작기술을 보호하고자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한산모시짜기 명예보유자로는 문정옥(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기능보유자로는 방연옥(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나상덕(충남무형문화재 제1호) 등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전통직조기능 보유자들이 1993년 8월 개관한 한산모시박물관

에서 전통의 맥을 잇다.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 한산모시를 바로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시품을 처음 발견했던 건지산 기슭에 모시각, 전통공방, 전수교육관, 토속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수교육관내 전시실에는 모시의 역사를 전해 주는 고증 서적과 베틀, 모시길쌈 도구, 모시 제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통 공방에서는 모시짜기, 모시삼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모시짜기 등의 공정을 재연하고 있다.

특히 한산모시관은 앞서 말한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모시 짜기 시연까지 볼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이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모시를 더 잘 알고 만져보고 또 모시를 활용하여 여러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한산모시관을 통해 체험하는 우리 문화

봄바람이 사랑살랑 기분 좋게 불던 4월의 한낮, 충남 서산에 위치한 인지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나는 한산모시를 공부하고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이곳, 한산모시관을 찾았다. 4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인 이종목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우리 충남의 자랑인 한산모시에 대해 가르쳐주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한산모시관을 찾게 되었다. 한산모시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기를 바란다”며 이날 한산모시관은 찾은 연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 개의 반으로 구성되어있는 인지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한산모시관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웃고 떠들기 바쁘다.

한산모시 전시관의 모시 전수관이 있는 2층은 한산모시로의 초대, 한산모시 제조과정, 모시의 복식사, 세계의 모시, 미래산업 한산모시 등 5개의 주제로 이뤄져있다. 마지막 주제관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1층 전시실로 이어지는데, 1층은 무형문화재 홍보관, 모시재배와 농기구 전시관, 생로병사관, 모시생육표본관 등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은 한산모시의 제작과정을 실제와 흡사한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전시관의 한 방, 한 방을 재미있게 들여다보며 우리 선조들의 모시 짜는 광경을 실제로 보듯 “우와~!” 탄성을 자아내기 일쑤다. 모시의 세계적 분포와 품종 등 우수성을 메모하며, 자신들

이 살고 있는 고향의 전통문화, 그리고 역사에 한 발 더 다가선다. 미래산업 한산모시 주제관에는 모시를 이용한 여러 실용적인 제품들, 모시차와 모시음료, 그리고 모시비누 등이 진열되어있다. 모시재배와 농기구 전시관으로 이동한 아이들은 한산모시제조에 필요한 도구와 한산모시에 관련된 농기구를 보며 ‘이런 기구도 있었구나’ 하며 신기해한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오면 자동으로 인지되어 영상이 상영되는데 모시의 고향 한산면과 모시품 재배와 제조과정을 쉽고 설명해주고 있다.

아이들 손에서 빛어지는 우리중이, 우리웃감의 절묘한 조화

모시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한산모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은 이제 직접 모시를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교실로 향했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한지와 모시를 이용한 고풍스럽지만 아기자기한 꽃접시를 만드는 체험. 이 과정을 함께 하며 모시에 대해 알려주신 분은 한산모시관 체험프로그램 교사인 김만자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나눠주는 딱딱한 종이로 만들어진 접시의 모형틀, 그리고 색색으로 염색된 고풍스러운 한지와 끼슬한 모시 조각들이 이날 필요한 재료들이다.

천연재료로 만든 풀을 접시모형틀 겉면에 바르고 각 면에 붙여질 모양으로 잘라놓은 예쁜 색깔의 한지를 잘 발라 붙인다. 꼼꼼히 붙이지 않으면 공기구멍이 생겨 들뜰 수 있어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아직은 고사리 같은 귀여운 손으로 자신들의 접시를 정성스럽게 만져나간다. 겉면과 안쪽 면



한산모시에 대한 우수성을 배우고 체험한 충남 서산 인지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모두 한지를 붙이고 난 뒤, 접시 바닥이 되는 면에 모시조각을 붙이는 것이 오늘 프로그램의 포인트! 아이들은 모시조각에 정성스레 풀을 바르고 접시 밑면에 붙인다. 마지막으로 빨간 꽃잎 모양의 장식지를 모서리 등에 붙여 예쁘게 꾸며준다. 이 접시에 은은하게 반짝임을 더해주는 금빛 가루를 뿌려주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고풍스러운 꽃접시가 완성된다.

4학년 1반 현진혁 어린이는 “오늘 이 접시를 만들어보니 한산모시에 대해 좋은 점을 알게 되었고 또 한지도 너무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든 것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같은 반 김예영 학생은 “재미있는데, 풀이 잘 안 붙어서 아쉽다”며 더 잘 만들 수 있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모시가 충남에서 난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며 소중한 시간에 대한 소감을 드러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우리문화, 그 전승의 가치

햇볕이 너무도 좋은 날, 체험을 마친 아이들의 미소가 활짝 만개한 봄꽃마냥 환하게 퍼진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현대의 디지털 기기와 문화들을 흥미롭게 접해오던 아이들에게, 전통의 체험은 색다른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느낌의 미학,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배우고 지켜가는 즐거움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고한 가치를 남긴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일이 담긴 문화를 전해주고 이어나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천 년, 만 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을 영롱한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다. ☺

한산 모시 체험 프로그램

1. 모시 한지 체험 : 닥나무죽에 태모시 및 한지 등을 첨가해 다채로운 모시한지를 만들어본다. 한지 골조에 다양한 문양을 모시와 한지를 이용하여 작품 만들기를 직접 체험해본다.

첫째 주 : 아크릴 모시 컵받침
둘째 주 : 모시한지 무늬 부채
셋째 주 : 모시한지 손거울
넷째 주 : 모시한지 꽃접시
다섯째 주(4,7월) : 아크릴 모시 컵받침
(1시간 정도 소요 / 체험료 : 2,000원 / 단체 접수)

2. 모시 공예 체험 : 필모시를 이용해 모시 브로치, 모시 명함집 등 규방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본다.
(1시간 정도 소요 / 체험료 : 6,000~30,000원 / 단체 접수 및 현장 접수)

3. 모시웃 입기 체험 : 모시관에서 보관 중인 모시웃을 관람객이 착용해 볼 수 있다. 원하는 관람객에게는 기념사진도 촬영해준다. (20분 정도 소요 / 체험료 : 무료 / 현장 접수)

단체 20인 이상 선착순 접수(전화 접수만 가능)
예약 문의 : 041-950-4431(서천군청 문화체육과 한산모시담당)



글 김기일
사진 정지용(북아프리에)

전통을 고수한 장인정신 200년 代를 잇는 가업이 되다!

국내 유일 조선왕실도자 9대 가문 '영남요嶺南窯'

200년에 달하는 세월동안 아버지에서 아들로 도예(陶藝)의 가업을 잇는 조선왕실도자 '사기장' 집안이 문경에 있다. 자그마치 3대도 아닌 9대를 잇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200년간 도예를 이어온 사기장 백산 김정옥 선생이 있는 '영남요嶺南窯(문경을 진안리)'를 찾아 시대를 이어 세대로 전해질 지역문화 고수의 정신을 만나본다.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전통을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함'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움'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힘이 된다. 조선왕실도자 9대 가문 '영남요嶺南窯'는 200년간 전통을 고수하는 장인의 신념 속에 이제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적 문화유산의 탄생을 잇는 가업이 전수 될 수 있었다.

백산(白山) 김정옥 선생(7대, 이하 백산 선생, 72)은 뛰어난 발물레 솜씨와 조선도자의 전통성을 잇고 있는 유일한 사기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방병선 교수에 따르면 백산 선생의 발물레 솜씨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나다며, 명장인 그의 가치는 세계적이라고 말한다. 기자가 방문했던 당일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의 날로 해마다 실시해 올해로 5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공개행사는 잊혀 가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작업과정을 대중에게 직접 보여주는 자리이다. 또한 이날은 영남요의 자랑인 망댕이 가마의 불때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 50여 년을 한결같이 사용한 전통 '망댕이 가마'는 백자의 청아한 색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으로 1200도에 달하는 온도와 맑은 불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이또한 뛰어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날은 백산 선생의 아들인 우남 선생이 자리를 지키며, 또 한번의 탄생의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도자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의 칭호를 받은 백산 선생은 한국 도자기의 적통이 그에게 있음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공들이 일제시대 이후부터 도공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는 200여년 대대손손 가업으로 이어온 국내 유일의 사기장 집안 출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적인 조선 도자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는 정통성은 그의 유전자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유산인 것이다. 현재는 백산 선생의 손자까지 9대째 도공의 길을 걷고 있는 국내 유일의 조선왕실 도자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1800년대 정조시대 출발, 조선왕실도자의 맥을 잇다

조선왕실도자의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는 '영남요(嶺南窯)'의 출발을 풀어 가려면 1800년대 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도공 김취정 선생이 경북 문경 관음리에서 도예의 터를 닦은 이래, 5대 김비안 선생인 광주 분원에서 왕실 도자를 빚던 조선시대 최고의 사기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그 기록은 조선시대 사료에 남아 전해온다. 선친인 6대 김교수 선생 또한 일제시대 때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요장에 차출될 정도로 기예가 뛰어났다. 지금



저랑스런 한국인 수상(반기문 UN사무총장관 함께)_2006년

은 7대인 김정옥 선생을 이어 그의 아들인 우남 김정식이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로 8대의 맥을 잇고 있고, 그의 손자이자 우남 김정식(46)의 장남인 김지훈(19)은 한국도예고등학교에 진학해 9대째 가업 계승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백산 선생은 "선대에게서 사기를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흙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함께 배웠다"며,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기를 만들기 전에 사람이 돼야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법"이라며, 사기에 혼을 담기 위해 늘 삶의 태도를 다잡고 스스로를 다스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백산 선생의 사기는 "6.25 이후 끊어진 줄 알았던 민속 사기의 맥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진 집안의 가르침 덕분인 것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만드는 전통기법,

7대 백산 김정옥 선생

백산 선생은 "흙이 불을 통과해야 아름다움을 얻듯이, 생도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며 빛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백산 선생이 최초로 도예를 시작한 것은 열여덟 살이었다. 집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도예인의 길을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백산 선생의 고집은 결국 그의 모친도 꺾지 못했고, 그로부터 30여 년간 부친 김교수

우리문화 SPRING 2013



01

02

01. 7대 우남 김경식 명장
02. 8대 김지훈(한국도예고등학교 3년)

선생에게 각종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며 도자기를 만들었다. 또한 문경 곳곳 다니지 않은 곳을 없을 정도로 도자에 쓸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태토 선별에서 물레 연습, 일필휘지와 같은 힘 있는 운필 연습까지, 고되고 힘들었지만 오늘의 자신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인의 삶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6.25 이후 쏟아지는 현대식 대량생산과 플라스틱 그릇에 밀려 선조들보다 더욱 험거운 삶을 지나와야 했던 것이다.

삶의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의 나이 40대 때 백산 선생은 문경 관음리 깊은 골짜기에 묻혀있던 터전을 지금의 진안리 영남요로 옮겼다. 이유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큰길가에 있으면 도자기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예를 하는 방법만큼은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는 '먹고 사는 것보다 작품의 완성도에 더 목마른 법'이라며, 전통을 지켜온 것은 무엇보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신념이 전통을 지키는 힘이었다고 말한다. 이후 많은 사람들의 백산 선생의 작품에 매료 되었고, 그의 작품은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독일의 동아시아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등 세계 굴지의 박물관들에서 영구 전시중일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 한국의 사기장이 빛어낸 도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국보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꾸미지 않는 소박함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처럼, 영남요의 9대에 이은 정통성에 대한 인정은 선조들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빛을 발한다. 성형 뿐 아니라 원료 배합과 수비, 조각, 독특한 문양 시문과 전통 가마인 망태기가 마와 불 때 쓰는 적송 장작, 발물레를 이용한 전통적인 제작과정 등 하나의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 대대로 내려온 선조들의 전통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백산 선생은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장식과 기술을 못해서가 아니라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는 우리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그릇에 담기 위해 기교를 최소화 했다' 며,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라며, 자연스러운 도예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백산 선생의 도예는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이미지가 되어, 그만의 독자성과 당당함을 담은 작품으로 세계적인 인물들을 매료시키는 감동적인 작품이 되고 있다.

아버지를 이어 아들에게 도예 전수를 사명으로

8대 우남 김경식 명장, 9대 김지훈 군

백산 선생은 현재는 명장이 된 아들 '우남 선생'을 단 한 번도 앞에서 칭찬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자신보다 뛰어난 많은 부분이 많다'며 강하게 키워온 장인의 면모를 보였다. 강요보다는 묵묵히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백산 선생 대표작품

- 01 (익살스러운 우리호랑이) 분청사기철화호랑이문항아리. 粉靑沙器鐵畫虎紋壺. Jar. Buncheong ware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with a tiger motif. 高43-幅 48cm
- 02 (圓에서 角이되고) Circle to Angle 백자팔각항아리 白磁八角壺. 高36-幅37cm. Jar, Porcelain with octagonal angle
- 03 (白磁大壺달항아리) Full Moon Jar
- 04 (차사발) 井戶茶碗 Tea Bowl 高10-幅15.5cm

이 우남 선생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계기 된 것이다. 그의 아들인 우남 선생도 아버지 옆에 앉아 배우다보니, 아버지를 따라 도자기를 만드는 일 또한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군에 입대해 7년간 대위 생활을 마치자마자 바로 아버지 옆에 물레를 놓고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른을 넘겨 시작한 도예의 길을 우직하게 큰 걸음으로 이어져 1999년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선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의 전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 분야의 최고봉의 전통을 잇는 자리에 올랐다는 의미이다. 이후 우남 선생도 캐나다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작품을 전시해 세계로도 그 명성을 날리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4월 영남요의 맥을 이어줄 김지훈(한국도예고등학교 3년, 19)군이 최근 문경전통차사발축제 행사의 하나인 발물레 경진대회 학생부에서 3등을 차지하는 경사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김지훈 군 또한 입문을 한지는 1년 전이지만 남들보다 빠른발물레 솜씨로 도공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증명 받은 것이다. 우남 선생은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중간자의 위치에서 무거운 책임도 있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인정받아 가는 것이 아들에게도 더욱 힘이 실리는 계기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꿈 또한 아버지와 같은 장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포부를 말한다.

백산 선생의 마지막 꿈은 우리 전통도예가 세계에서 더욱 활약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가문의 가업의 전통을 잇는 이들의 길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더욱 기대가 되는 만남이 될 수 있었다.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다는 것은 어쩌면 물길이 자신이 흘러가야 할 신념과 철학의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200년간 한 길을 묵묵히 이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전통을 지키고 작품을 완성해 간다는 장인의 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물길이 한국인의 정신을 미래로 이어 많은 이가 '영남요'의 백자에 감탄하고 탄복할 수 있도록 소중함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다. ☺



조선백자의 청아함을 만들어내는 영남요의 '망태기 가마터'

문화, 세계를 잇다

'전 세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세계의 일부이고 '세계화'는 우리 삶의
터전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현실입니다.
세계가 우리 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씬입니다.

여기 세계화된 세상을 조금은 편안한 시각으로 바라본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아는 '태권도'를 무용극으로 변화시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태권무무 달하' 그리고 우리에게 고향에서 쉽게 만나는
'꽃담장과 취명'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입니다.

이는 우리들 삶의 터전에서 생성되는 문화가 바로 현실이며,
곧 세계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글 정아슬
글 정지용(북아뜨리에)

봄꽃들의 봉오리가 터져 화색이 만발해도, 그들은 지금 거울 앞에서 세계 속의 경기도, 세계 속의 한국을 위해 자신들의 손짓과 작은 실루엣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은 오케스트라의 화음 대신, 신명나는 장구의 리듬이 쿵쿵 울리고 있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경기도립무용단의 조흥동 단장을 만나보았다. 그가 창작하고 세계가 반해버린 태권무무 '달하'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꿈꾸는 세계의 명작으로 빛날 한국 전통 예술의 미래를 조명해보았다.

가장 한국적인 것, 그 참신한 변화에 세계의 마음이 동(動)하다

조흥동 경기도립무용단 단장이 탄생시킨 태권무무 '달하', 그리고 전통예술의 세계화

태권무무(武舞) '달하',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경기도를 알리다

태권무무(武舞), 이름이 조금 생소한 듯하면서도, '태권'이라는 단어가 태권도와 관련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달하'라는 제목으로 한국 무용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무용은 한국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주제로 하는 말이 없는 무용극, 즉 Non-verbal 퍼포먼스다. 단조롭고 직선적인 태권도에, 곡선적이면서도 느리다가 또 빨라지곤 하는 다양한 템포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 춤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태권武舞 작품이다. 조흥동 경기도립무용단 단장이 이끄는 이 독창적인 태권무무 '달하'는 이미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 호주 등 해외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경기도를 알리는 데에 주역이 됐다. 특히 2012년에는 미국 세다, 라스베가스, LA, 무려 세 개 주에서 공연을 펼쳤고, 모두 기립박수를 받는 감동의 피날레를 연출하기도 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Korean Culture Awareness Day(한국문화인식의 날) 공연에 대한 감사장을 상원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수여하기도 했으며,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미국 LA한국문화원의 경기도립무용단 재초청으로 여러 경비를 지원받으며 성공적인 공연을 추진하기도 했다.



조흥동 경기도립무용단 단장

신비스러운 동양적 모티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태권도를 무용화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심을 했지만, 초연하기까지의 에로사항이 무척 많았다며 당시를 회상하는 조흥동 단장은 "당시 현역 중령이 한국 태권도 2천 년 사를 발간했는데, 시판되기 전에 먼저 읽어볼 기회가 주어져 세세히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태권도가 인류 탄생(그 당시에는 이름이 달랐겠지만)과 함께 생겨난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천재지변과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던 태권도를 인류 태초 이야기와 함께 접목시켜 초기 아이디어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동양의 천지창조 신화와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신화 속 상징물에서 신비로움을 간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선무도, 태권, 태권도 등 고난이도의 무술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용을 창작해낸 끝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신선한 예술 공연이 탄생한 것이다.

전통적이지만 너무도 새로운,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낸 감동적인 이야기

사실 태권도를 주제로 한 첫 작품, 'The moon'은 2005년 러시아의 유명 연출가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실패의 쓴맛을 보고 말았다. 두 번째 시도 역시 같은 결과를 겪은 후, 세 번째의 재도전이 조흥동 단장에 의해 만들어진 이번 작품, 2008년 초연되었던 태권무무 '달하' 였던 것이다. 조 단장은 자신이 그동안 맡아 해왔던 작업들은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형상화하여 현대화하는 것인데, 태권무무는 너무도 새롭고 이 전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느껴져 연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렇기에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달하'에 대한 애뜻함을 드러냈다. 그가 경기도립무용단을 이끌기 전, 국립무용단과 서울예술단 소속이었던 당시에는, 순수 우리 민속무



용, 즉 부채춤이나 장고춤, 탈춤 같은 작품으로 해외 공연을 펼쳤다고 한다. 화려한 의상과 소품, 그리고 너무도 한국적인 색채에 외국인의 관심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번 태권무무는 아이디어와 소재 면에서 기존의 한국 전통춤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말해주듯 외국인들은 물론 해외 언론까지도 찬사를 건네는 등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달하'의 해외공연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에 선봉장으로써의 자긍심이 묻어난다.

“미국, 일본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춤으로 현대화했다는 참신함을 극찬하며 작품성과 흥행에 대해서도 굉장한 반응을 보여 저 역시 놀랐고 감명 받았습니다.” 특히 호주 공연했을 당시는 '달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두 시간 전부터 200미터의 긴 줄(총 관객 1,700여 명 중 약 80%가 비한국계)을 서며 기다리기도 했는데 총 객석이 매진된 후에도 추가로 입장하여 계단에 앉거나 서서 보는 등 진풍경을 연출했다고 한다. 이 공연으로 시드니에서 \$30,000 대관 관련 예산을 지원, 협력으로 시가 주최하는 2012년 문화프로젝트 'Living in Harmony Festival 2012'의 개별 행사로 인정되었다. '달하'의 공연설문결과 99%의 만족도를 보였고, 앙코르공연 요청 쇄도로 호주 문화원과 영사관에서도 그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예술,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지원 필요

태권무무 '달하'처럼 초연까지 난관이 많았던 작품도, 열어보면 그 빛이 발하는 것처럼 다른 여러 한국 전통 예술작품들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홍동 단장은 우리나라 예술 단들이 해외 공연을 한 번 하기 위해 겪는 우리나라의 현 시스템에 아쉬움을 밝혔다. '달하' 역시

한국 전통문화라고 해서 또한 독특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계인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성공적인 창작극을 위해서는 볼거리, 빠른 템포, 예술적 승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01. 공연 2시간 전부터 줄을 선 호주관객들 모습.
02. 해외 공연 후 쏟아진 기립박수

높은 작품성을 드러냈다. “특히 무용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의사전달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 장면의 쉬운 의미전달이 중요한 것이고, '달하'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봅니다”. '달하'에서는 태초 이전 무(無)의 세계, 태초 남녀의 탄생과 사랑, 그리고 天地水火 신들의 탄생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스토리뿐만 아니라, 나비, 개구리, 공작, 뱀, 독수리 등 자연 속의 여러 생명들이 자신의 춤을 추며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는 우리 인간사회의 풍자적 은유이기도 하다. 강한 자가 지배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의 양육강식적 세계 말이다. 양육강식의 규칙이 절대적인 전쟁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듯 무용을 통해 자연의 생명들에 인간 삶을 통쾌하게 풍자하는 심오한 의미를 더했다는 것 역시 스토리의 깊이를 더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전통을 현대화한 참신한 볼거리, 그 예술적 승화가 진정한 'Korean Masterpiece'

그의 전략으로 볼 때, 한국 전통문화라고 해서 독특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계인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하며, 특히 일부러 너무 억지스럽게 전통을 현대화하다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특히 디지털화, 공동네트워크화가 되어가는 추세 속에 이미 많은 전통문화가 해외로 흘러들어가, 신선함과 참신함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창작극을 위해서는 볼거리, 빠른 템포, 예술적 승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한 장면이 3분 미만으로 구성되는 스펙터클한 연출, 구전소설이 아닌 신화적인 모티브와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된 장면 변화, 엔딩스토리가 추상적이지만 신비로움을 담고 있어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쉽게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 이것이 태권무무 달하를 감동적이고 재미있기까지 한, 너무도 한국적이면서 너무도 세계적인 우리만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태권무무 '달하'의 명장, 조홍동 단장이 정의하는, 모든 세대와 모든 국경을 아우르는 명작이다. ☺

한 번의 해외 공연을 위해 45명의 단원들이 이동하기 위한, 그리고 각자의 소도구 등 짐을 운반하는 경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다른 문제들보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한다. 특히 단원들의 비행 경비는 그렇다 치고, 짐과 소품이 워낙 많고 무겁기 때문에 그 운송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그나마 우리는 경기도립의 무용단이기에 다른 공연단보다는 수월하게 해외공연을 갔다 올 수 있는 편이지, 다른 여러 예술단원들에게는 해외로 이동하는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큰 숙제임이 현실”이라며 국가브랜드화 차원의 정부지원 혜택이 더 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흥미롭고 새로운 소재, 리드미컬한 구성, 무용은 쉬운 의미전달이 중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태권도 역시 식상하게 여겨질까 우려했는데, 의외로 '이건 진짜 새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낸 태권무무 '달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의 김혜식 원장 역시 이 작품을 극찬하며, 살풀이나 탈춤 같은 기성의 우리 전통작품은 이미 외국인들의 눈에 이미 익숙해져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외국에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호평을 했으며, '달하'의





문화, 세계를 잇다 • 세계는 지금

우리문화 SPRING 2013

‘문화예술’ 버려진 섬의 재생을 위한 ‘희망의 빛’ 이 되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연수단,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방문기

봄, 여름, 가을... 일 년 동안 세 번에 걸쳐 108일 동안 축제가 진행되는 섬마을이 있다. 일본의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가 바로 그곳이다. 그 중 나오시마는 환경이 심하게 오염된 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버려진 섬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으로 나오시마 섬을 살리는 문화마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고 이후 일대 주변의 섬들도 재생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현장에서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점은 무엇인지 직접 현장을 찾은 연수단을 따라가 보자.

46 / 47



대만작가 왕웬치의 '소도마의 빛' 모습

올해 예술제의 주제는 <바다의 회복>으로 기존 7개 섬에서 5개 섬을 더 참여해, 총 12개 섬과 항구가 저마다 역사와 문화를 담은 각각의 전시장으로 변모했다. 15개 지역에는 총 75명의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세토우치를 품은 섬, 시코쿠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열리는 '시코쿠'는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4대섬(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가운데 가장 작은 섬으로, 오사카와 효고의 남쪽 태평양에 접한 1만8천평방km 규모의 섬이다. 섬은 일본 해양 항로인 세토내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섬 안에는 4개의 현(에이메, 고지, 도구시마, 가가와)이 있다. 자연경관을 소개하면, 세토우치 바다에 접한 평평한 평야, 아름다운 섬들, 다이나믹한 해안선, 그 사이에 있는 높은 산지 등은 섬마을 그대로 자연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겨져 있다. 내륙에는 서일본 최고봉인 1982m의 석추산(石鎚山)을 비롯하여 1700m이상의 산들이 즐비해 있으며, 산지의 상부지역에는 아한대성 기후이고 침엽수림지대가 많다.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고 수빙(樹氷)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들 산맥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섬의 남북기후가 사뭇 다르다. 특히 가가와 현은 강우량이 적어 서기 701년에 만농지(滿濃池)라는 큰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둘레 20km에 수심 30m의 저수량으로 1540만톤이 담긴 일본 최대의 인공호수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토내해는 고대부터 문화 전파의 길로 번영해 왔으나, 섬과 암초가 많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항해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 섬사람들은 뱃길 안내인으로도 활약했다. 또 이들을 통솔하는 귀족이 생겨났고(서기 941년)1931년에는 반란을 일으켜 조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 했는데 이 때문에 강한 수군의

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천황 귀족들의 정치 패자들의 유배지였다. 1988년 세토대교가 만들어 지기 전에는 본토와의 접근성이 나빠 모든 면에서 산업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자연환경과 각종 정통 문화유산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있다. 특히 온천의 나라 일본이라는 타이틀답게 세토우치섬도 온천으로 유명하다. 3000년 역사의 도고온천은 일본최고의 온천이며 과거 천황 전용온천으로(천황이 세 번 다녀 갔다함)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구경시키고 있다. 또한, 시코쿠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인들이 배출되었는데, 일본최고의 인물인 사카모토 료마 판본용마(坂本龍馬)는 일본근대화를 이끈 인물이고 문인으로는 나쓰메 쇼세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 등이 모두 이곳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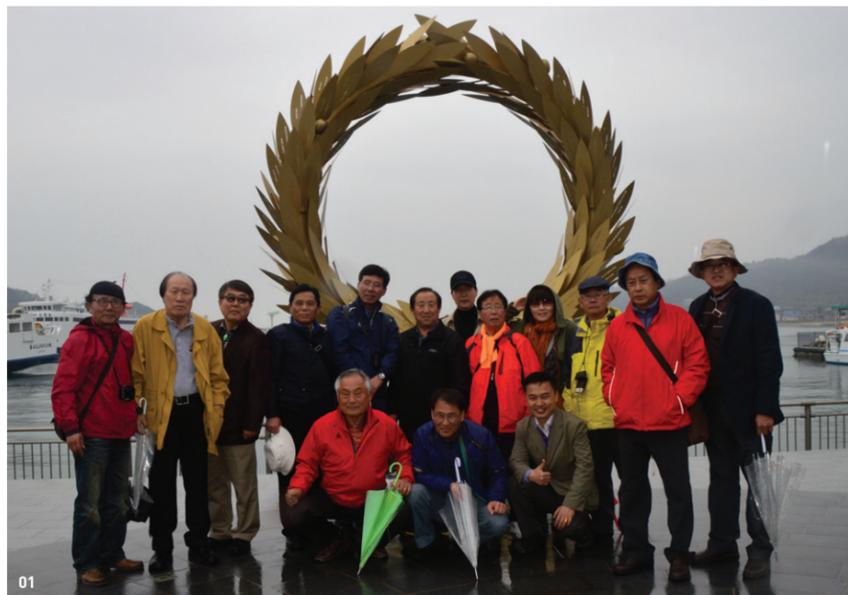
12개 섬이 함께 만드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사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이야기하자면, 우선 나오시마 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 '나오시마 섬'은 국제예술제의 시작점이 되는 코스로 일본 세토내해 일본의 가장 큰 섬 혼슈와 그 아래 2개 섬 사이 내해에 있는 작은 섬이다. 둘레 16km에 인구는 고작 33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이곳은 바닷가를 따라 공업지대가 발달하다 보니 지독한 산업폐기물과 환경오염에 시달렸으며 한때 주민 수가 200명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야말로 오염으로 인해 버려진 섬이었다. 이처럼 나오시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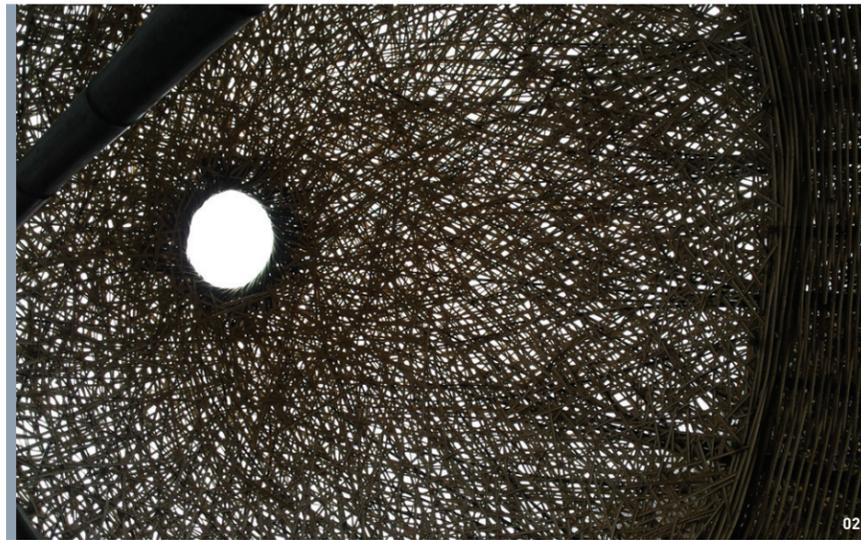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방문하려 하지 않았던 조용한 시골 섬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9년 시작된 재생 프로젝트에 의해 예술가들 손길이 이곳에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나오시마는 '예술'을 대표하는 섬으로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의 섬으로 조금씩 탈바꿈되고 있다. 버려진 공터 곳곳에 미술관이 들어서고 항구 입구부터 마을주민이 사는 곳까지 섬 안에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 여행지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섬을 살리고자 했던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면서 섬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후,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참여로 1992년 미술관과 호텔을 결합시킨 베네세하우스를 열었고, 이어 1997년 섬마을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에(家) 프로젝트, 2004년 그 유명한 지추(地中)미술관을 열었다. 지추미술관이 서양미술의 정수라면, 동양미술의 정수는 무엇일까 고민하다 2010년 이우환미술관을 열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웃 섬으로 번졌고, 20세기 초부터 폐허로 남아 있던 이누지마 섬의 구리제련소는 '세이렌쇼미술관'으로 바뀌었고, 16년 동안 산업폐기물 불법투기장이었던, 테시마 섬에는 2010년 '테시마미술관'이 들어섰다. 이처럼 사람들이 되살아난 섬들에 세계적인 방문으로 활력이 돌아 2010년 7월 19일 이들 섬을 다 묶어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열리기 시작했다.

'바다의 회복'을 꿈꾸는 2013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그리고 올해 2013년 두 번째 예술제가 열렸다.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로 이름을 바꾸어 봄, 여름, 가을 세 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올해 예술제의 주제는 <바다의 회복>이라 하여 기존 7개 섬에서 5개 섬을 더 참여케 하여 총 12개 섬과 항구가 저마다 역사와 문화를 담은 각각의 전시장으로 변모했다. 15개 지역에는 총 75명의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그 중 한국 작가는 팝 아티스트 최정화의 작품 두 점이 쇼도시마에 설치되기도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우수문화원 해외연수단을 선발해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참여를 위해 3월 19일 일본으로 떠났다. 3월 20일 연수단은 다카마쓰항 국제예술제 개막식에 참관하고 바로 최정화 작가 작품이 전시된 쇼도시마로 이동했다. 쇼도시마 도노쇼 항에 도착한 것은 20일 1시 35분. 배에서 내리자 부둣가에 최정화 작가의 작품 <태양의 선물>이 바다를 향해 황금색을 번쩍이며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름 2m나 되는 대형 원형의 왕관모양의 이작품은 이 섬이 올리브 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황금색 올리브 잎에 이곳 어린이들의 소망을 조각하여 쇼도 섬의 거대한 태양을 받아 뺄아가는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걸작이었다.



01



02

03

01. 쇼도시마 섬에 설치된 최정화 작가의 <태양의 선물> 작품 앞에서
02~03. <쇼도시마의 빛> 내부와 들어가는 입구

세토우치 섬의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문화라는 핵심 키워드의 도출, 지역사회의 관심, 기업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 등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어 대만작가 왕웬치(王文志)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이작품은 얇은 계곡 경작지 안에 설치된 <쇼도시마의 빛>라는 대나무작품이었다. 15m 정도의 높이에 거대한 설치물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나무 5,000그루를 이용해 12명의 마을 사람들이 두 달이런 시간을 작가와 함께 작업하여 완성한 작품이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면, 대나무로 바닥과 원통 천정을 얇게 한 30여m의 미로를 만들고 미로를 걸어 들어가면 높이 10여m의 반원형 돛형 천정에 직경1m나 되는 원형구멍이 뚫려있고 수직으로 밀엔 1m사각형의 빛을 모으는 대나무 통이 있었다. 어려운 미로를 거쳐 빛을 모으는 작품의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작품을 통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며 생각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다가왔다. 이 섬 안에는 두 작품 외에 19명의 작가가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는 데 시간문제로 작품은 두 곳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짧은 시간동안의 방문이었으나, 문화예술을 통해 이루어진 섬

재생 프로젝트는 지역민, 지역사회, 기업가 등이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큰 성과로 보였다. 특히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지역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결국 성공요인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문화라는 핵심 키워드 도출, 지역사회와의 관심, 기업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새 정부가 말하는 문화융성의 시대가 되려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 요소로 작용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번 세토우치국제예술제 방문을 통해 연수단이 느낀 것은 지역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가 발현되고 있었고, 지역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방문화원도 지역의 문화적 원동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지역민과 함께 공감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Info.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 참여해 보세요!

- 1. 개최시즌 : 봄(3월 20일 ~ 4월 21일 / 33일간), 여름(7월 20일 ~ 9월 1일 / 44일간), 가을(10월 5일 ~ 11월 4일 / 31일간) 총 108일
- 2. 개최장소 : 2010년부터 계속 개최지역(나오시마, 데시마, 메기지마, 오기지마, 쇼도시마, 오시마, 이누지마, 다카마쓰항, 우노항 주변)
*신규개최지역(사미지마, 혼지마, 다카미시마, 아와시마, 이부키지마)

그윽한 향기로 천년을 사는

꽃담장과 취벽

글/그림 최경석

조선의 왕비, 왕비가 지냈던 교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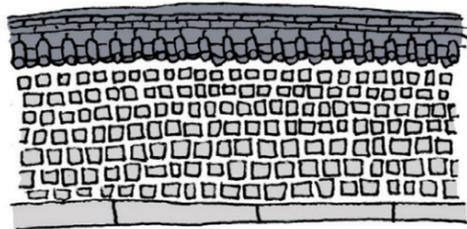


그리고 대왕대비. 그녀가 지냈던 자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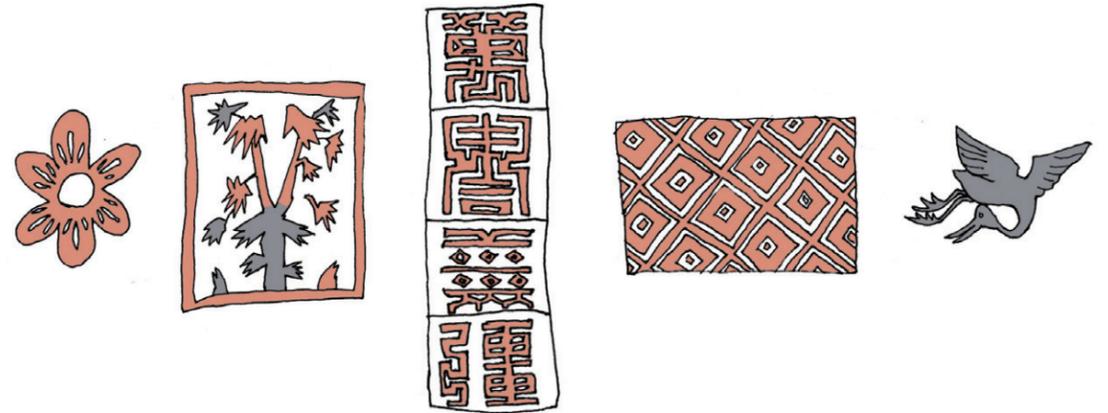
위엄으로 말하면 조선땅의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지만, 이분들도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궁궐담' 하면 보통 이런 위엄있는 담장이 떠오르죠.



하지만 교태전과 자경전 주변엔 아름다운 꽃담을 세웠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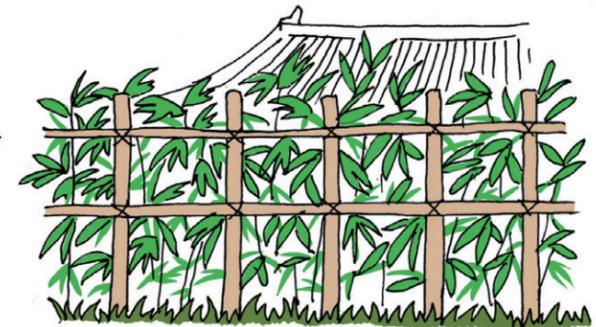
꽃담이라 하여 단순히 꽃장식을 한 담이 아니라, 꽃은 물론, 사군자, 장수기원 글자, 추상무늬, 십장생등으로 장식하여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궐에는 취벽(翠屏)이란 독특한 담장도 있었습니다. 그 뜻 그대로 나무나 덩굴식물로 만든 생울타리입니다.

들리지만, 보이지 않지!



일제시대에 전부 소실되었으나, 창덕궁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 올봄엔 나들이겸 우리 고궁에 들러 꽃담장과 취벽을 보고 오는건 어떨까요?

2013년 상반기 지방문화원 신임원장 취임



구로문화원 최문식 원장 (2013. 3. 15 / 신임)
주)세일화섬 대표이사
구로장학회 이사
구로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대구 서구문화원 박수관 원장 (2013. 2. 23 / 신임)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 대한민국 명장
델픽세계무형문화재
대한민국동부민요 보존회 회장
前) 서구문화원 부원장



속초문화원 박우웅 원장 (2013. 3. 1 / 신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시민대상 수상(1994년)
서울시청 재직/ 前) 속초문화원 이사



청원문화원 송정화 원장 (2013. 3. 1 / 신임)
前)오송농협 조합장
前)청원군 체육회 이사
임진왜란정신문화선양회 이사
前)청원문화원 부원장



보은문화원 광희 원장 (2013. 3 / 신임)
보은유선방송사 대표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前)보은문화원 부원장
前) 보은신문사 대표이사



옥천문화원 김승룡 원장 (2013. 3. 1 / 신임)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정순철 기념사업회장
前)옥천문화원 부원장
주)세림 대표이사



금산문화원 이철주 원장 (2013. 2. 27 / 신임)
금산고등학교 교장
금산교육지원청(금산교육장)
충무교육원 원장



부여문화원 정찬국 원장 (2013. 4. 5 / 신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前)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장
前) 사)전국조각가협회 이사장
前) 부여문화원 이사



전주문화원 나중우 원장 (2013. 1. 29 / 신임)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문학박사)
전북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전북역사문화학회 회장
前)문광부 한?일 문화교류정책 자문위원



광양문화원 김희석 원장 (2013. 4. 1 / 신임)
前)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前)광양JC 특우회 회장
前)광양문화원 이사



해남문화원 김강진 원장 (2013. 2. 5 / 신임)
산이중학교 교장. 근정 표창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이사
해남문화원장 직무대행



완도문화원 김일 원장 (2013. 4. 11 / 신임)
주)대륙강화 대표
완도 참여연대 초대 상임 대표
완도군 문화재 심사위원
前)완도문화원 부원장



밀양문화원 안병훈 원장 (2013. 3. 1 / 신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
초등학교 교장 역임
前)밀양문화원 부원장



의령문화원 허훈도 원장 (2013. 3. 1 / 신임)
김해시 김해어방초교 교장 퇴임
의령군 교육삼락회 회장
前)의령문화원 부원장



함양문화원 원장 (2013. 1. 1 / 신임)
前)경남교육연수원 교수부장
前)경남함양교육청 교육장 / 前)함양문화원 부원장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함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장

지방문화원 5,6월 행사 캘린더

4월부터 진행

- 〈강동문화원〉 제11기 강동문화대학 강좌 / 4.17~6.26 / 강동구민회관 1층 소회의실
- 〈경기 광주문화원〉 송정4동 힐링 마을 만들기(벽화 그리기 및 꽃밭 만들기) / 4. 26~6. 30 / 송정4동 경화여중고 일대
- 〈경주문화원〉 경주 양동마을 전통유교, 전통가옥숙박, 민속문화체험 / 4~11월 / 경주양동마을
- 〈은평문화원〉 2013 은평향토문화해설사 양성전문교육과정 / 4~6월 / 은평문화원
- 〈예천문화원〉 예천문화원 부설 문화학교 / 4~7월 / 예천군문화회관

5월 1일(수)

- 〈동작문화원〉 소월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동화「피터와 늑대」/ 19:00 / 동작문화복지센터
- 〈마산문화원〉 제27회 전국시조경창대회 / 11:30 / 문화원강당
- 〈장수문화원〉 (타루비) 순이리 제례봉행 / 장수군 천천면 (타루비각)
- 〈통영문화원〉 임원 문화 유적지 답사 / 5월 중 / 미정
- 〈강릉문화원〉 제3회 모란꽃 사생작가 초대전 / 5월 중 / 일자산 모란단지
- 〈대구 달성문화원〉 제16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 5. 1~5. 8 /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
- 〈영주문화원〉 제27회 소백문화제 / 5. 1~5 / 영주시·선비촌·소수서원 일대
- 〈인천 연수문화원〉 문화의거리 '프린지거리음악제' / 5월~10월
매주 수 12:00~ / 송도신도시거리

5월 2일(목)

- 〈영주문화원〉 제9회 영주역사인물학술대회 / 14:00 / 소수서원 충효교육관
- 〈구리문화원〉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 15:00 / 구리시청 대강당
- 〈원주문화원〉 충효사 헌다례 /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충효사 사당
- 〈고양문화원〉 고양행주문화제 / 5. 2~5. 5 / 행주산성, 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 및 고양시 전역

5월 3일(금)

- 〈마산문화원〉 제13회 마산회화대회 / 14:00 / 마산실내체육관
- 〈완도문화원〉 2013 완도 장보고축제 전국 학생 문예 백일장 / 장보고기념관 일원
- 〈창녕문화원〉 유아초등학교 현충시설 및 문화유적지 답사 / 경주

5월 4일(토)

- 〈청원문화원〉 오송뷰티화장품박람회 청원군의 날 공연 / 오송 뷰티박람회장
- 〈대전 대덕문화원〉 제18회 대덕백일장 / 10:30~14:00 / 동춘당 공원
-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조선통신사 평화의행렬 참여 / 15:00 ~ 18:00 / 용두산공원 광장 및 광복로 일원
- 〈인천 연수문화원〉 주말가족문화프로그램 / 5월 ~ 12월 매주 토 / 연수구 관내 3개동

5월 5일(일)

- 〈영주문화원〉 제1회 전국 회헌(안향)선생 회화대회 /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우천시 : 국민체육센터)
- 〈황성문화원〉 제6회 황성평생학습축제 회화대회 / 10:30 / 황성군실내체육관

5월 6일(월)

- 〈성북문화원〉 제3회 역사문화특강 '국가브랜드와 한국문화' / 성북 평생학습관
- 〈부산 시하문화원〉 "강" 문화탐방 / 08:00 / 낙동강문화관
- 〈동해문화원〉 논골담길 스토리텔러 역량강화연수 / 5. 6(월)~5. 22(수), 13일간 / 묵호동 주민센터 2층회의실, 논골담길

5월 7일(화)

- 〈인천 남동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원 '외국인을 위한 우리문화공감' /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충주문화원〉 2013 1차 고구려 역사문화 탐방 / 5. 7~5. 11 / 중국 한인집안시 일원
- 〈강릉문화원〉 솔향녹색학교 / 5. 7~7. 17 / 예맥아트센터

5월 8일(수)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2013 서울문화가족 서예, 사군자 경연대회 / 14:00~17:00 / 서울 중구구민회관
- 〈구미문화원〉 삼열부제 / 11:00 / 삼열부사당(옥성면 농소1리)

5월 9일(목)

- 〈칠곡문화원〉 제46회 문예백일장 / 칠곡문화원 및 왜관성베네딕도 수도원

5월 10일(금)

- 〈구로문화원〉 3회 산사음악회 / 19:00~21:30 / 원각사(공동)
- 〈울산 중구문화원〉 덕출 불면지노래비 백일장 및 사생대회 / 13:30~17:00 / 서덕출공원
- 〈노원문화원〉 제2회 문화유적지탐방 / 07:00 / 경북 경주
- 〈안산문화원〉 불기2557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등축제 / 화랑유원지 및 안산시청 앞
- 〈옥천문화원〉 제26회 지용제 / 5.10~12 / 지용생가 및 시내 일원
- 〈공인문화원〉 제11회 포은문화제 / 5.10~5.12 /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
- 〈대전 유성문화원〉 2013 유성온천문화축제(유성온천수신제, 유성온천수축정놀이, 전민골 상여놀이, 대동풍물제) / 5.10~5.12 / 온천로일원(문화의거리)
-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금요문화마당 인문학콘서트 / 5.10 ~ 6.28(매주 금) / 울산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안양읍성 외

5월 11일(토)

- 〈구리문화원〉 2013 구리동구릉문화제 및 전통성년례 / 11:00 / 구리광장~동구릉
- 〈구리문화원〉 제23회 구리시민백일장 / 09:00 / 동구릉(원릉)
- 〈울산 중구문화원〉 울산읍성둘레길탐방 / 13:40~16:00 / 동헌 출발
- 〈울산 중구문화원〉 도호부사 행사 퍼레이드 / 14:00~15:30 / 동헌 출발, 울산중구원도심일대
- 〈은평문화원〉 은평미술실기대회 / 은평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김승록선생추모제 / 길산동 묘역
- 〈무안문화원〉 어린이 글짓기 및 사생대회 / 초의선사탄생문화제 행사장
- 〈대구 서구문화원〉 2013 행복서구페스티벌 / 5.11~12 / 비산동 달서천복개도로
- 〈부산 서구문화원〉 제15회 구덕골문화예술제 / 5.11~5.12 / 부산 서구 구덕아영장 일원

5월 12일(일)

- 〈성북문화원〉 선잠왕비·공주퍼레이드 제21회 선잠제 / 성북구청 선잠단지
- 〈김천문화원〉 제34회 매계백일장 / 김천시스포츠타운 내
- 〈서산문화원〉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 서산시 일원 (1회)

5월 13일(월)

〈**청원문화원**〉한중서예문화교류전/ 5.13(월) 17 / 중국 강서성 경덕진문화관

5월 14일(화)

〈**군산문화원**〉최호장군 416주기 시민추모제 / 총의사(군산시 개정면)
〈**상주문화원**〉제4회 상주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 상주 도남서원
〈**동작문화원**〉문화유적답사 / 08:00 / 강원도 원주지역

5월 15일(수)

〈**여주문화원**〉세종대왕탄신 제616돌 송모제전 / 10:00~12:30 / 세종대왕릉
〈**부산 시하문화원**〉동네방네골목영화관운영 / 19:30 / 괴정2동 까치마을행복 센터 외

5월 16일(목)

〈**황성문화원**〉2013 실버가오제 / 15:00~ / 황성문화관
〈**구로문화원**〉제17회 구로구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및 제6회 구로구민 백일장 / 10:00~14:00 / 고척근린공원
〈**안동문화원**〉문화공원 열린음악회 / 문화공원

5월 17일(금)

〈**성북문화원**〉성북 역사문화탐방 / 5. 17~18 / 성북동 일대
〈**하동문화원**〉제18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 5.17~19 / 하동군 화개면. 약양면 일원

5월 18일(토)

〈**영양문화원**〉제1회 영양 산나물 전국한시백일장 / 10:30~17:00 / 영양군민 회관 및 축제장

5월 20일(월)

〈**청원문화원**〉성년의 날 행사 / 꽃동네 대학교
〈**남양주문화원**〉492주기 사릉(정소왕후)기신제 / 진건읍 사릉
〈**김천문화원**〉전통성년식 / 김천문화원
〈**서산문화원**〉제41회 전통성년례 / 한서대학교
〈**강릉문화원**〉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신규과정) / 5. 20~6. 5 / 강릉문화원
〈**동작문화원**〉어린이문화재견학교실 / 5.20~27 / 관내 문화유적지 (용양봉저정, 국립서울현충원)

5월 22일(수)

〈**황성문화원**〉고(故) 이연승선생님 추모 동시비건립 16주년 기념 '어린이 글짓기대회' / 13:30~ / 황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2013 서울문화가족 서예, 사군자 경연대회 시상식 / 14:00~17:00 / 동작문화원 4층 로비
〈**서산문화원**〉제15회 청소년문학제 시상식 / 서산문화원

5월 23일(목)

〈**대구 서구문화원**〉제24차 문화유산기행 / 충북 보은 및 경북 상주
〈**원주문화원**〉어린이문화예술향유프로그램 / 원주시 백운아트홀

5월 24일(금)

〈**노원문화원**〉당현천 작은음악회 / 17:00 / 당현천 분수대
〈**동두천문화원**〉제25회 청소년백일장 / 소요산 야외음악당
〈**동작문화원**〉향토사연구소 세미나 / 15:00 / 동작문화복지센터소강당
〈**동해문화원**〉목호등대마을 논골담길 제2회 등대콘서트 / 17:00 / 목호등대 광장

〈**충주문화원**〉제39회 충청북도 학생백일장 및 사생대회 /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안산문화원**〉제18회 성호문화제 / 5. 24~5. 26 / 이곡선생 사당 외 3곳
〈**무안문화원**〉향토사가에게 듣는 호남학 이야기 / 5. 24 / 무안문화원

5월 25일(토)

〈**인천 연수문화원**〉성년의 달 기념 전통 성년식 / 14:00 / 인천 연수구 원인재
〈**성남문화원**〉제8회, 둔촌 중국백일장 & 5회 한·중 문학인 시낭송회 & 제11회 학술토론회 '한·중 문학교류의 성과' / 09:00 / 중국 심양시 조선족 제6중학교 SK 홀
〈**제주문화원**〉2013 용연선상음악회 / 18:30 / 제주시 용연일대
〈**남원문화원**〉2013년도 열린 문화답사 / 수원화성 일원
〈**고양문화원**〉도갑대감 지신놀이 공연 / 17:00 / 고양문화원-아외공연장
〈**노원문화원**〉제15회 청소년문화예술제/ 13:00 / 중계근린공원 노원구민회관
〈**제주문화원**〉제주특별자치도 출범 7주년 기념 학생문예백일장 / 09:30~12:00 / 제주시 용연일대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달빛문화기행 / 개운포성 및 병영성
〈**포천문화원**〉제27회 반월문화제 / 10:30 / 포천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및 운동장일원
〈**부평문화원**〉제2회 두레天下 / 13:00~18:00 / 부평공원
〈**화천문화원**〉제4회 월하문화제 / 5.25(토)~26(일) / 월하문화관
〈**강릉문화원**〉사임당의 미로여행 / 5. 25(토)~6. 29(토) 총 3회 / 강릉시 일대

5월 26일(일)

〈**성북문화원**〉성북 역사문화탐방 / 5. 26~27 / 성북동 일대
〈**서산문화원**〉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 서산시 일원 (2회)

5월 27일(월)

〈**동두천문화원**〉제41회 성년의날 전통성년례 관·계례의식 / 시민회관 공연장
〈**충주문화원**〉충주문화원 발전기금마련 작품전시회 / 5. 27~5. 31 / 관아갤러리

5월 28일(화)

〈**성북문화원**〉정회원 상반기 역사문화탐방 / 경북 영주 부석사일대
〈**경남 고성문화원**〉제41회 경호효친백일장및 미술(서예) 사생대회 개최 / 고성 문화원 및 공설운동장 일원
〈**부산 시하문화원**〉동네방네골목영화관운영 / 19:30 / 괴정2동 까치마을행복 센터 외
〈**청원문화원**〉전국단체서예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5.28~6. 2 / 대청호 미술관

5월 29일(수)

〈**강릉문화원**〉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해피투게더' / 강릉단오문화관

5월 30일(목)

〈**경기도문화원연합회**〉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1차 / 5.30~31 / 수원시랑채(수원호텔)
〈**남해문화원**〉제9회 보물섬 마늘축제 / 5. 30~6. 2 / 보물섬마늘전시관 주변 무대

5월 31일(금)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한국민속예술축제 제15회 광주광역시예선대회 / 빛고을체육관
〈**의령문화원**〉학생한글백일장&그림그리기대회 / 의령충익사

〈**의령문화원**〉한시백일장 / 의령향교
〈**대구 달성문화원**〉제18회 문화원가족 단합대회 / 달성문화원 일원
〈**영주문화원**〉2013 영주 소백산 철쭉제 / 5. 31~6. 2 / 영주시·소백산 일대
〈**의령문화원**〉제3회 의병의날 기념 문화가족작품전시회 / 5. 31~6. 2 / 종합사회복지관1~3층

6월 1일(토)

〈**황성문화원**〉2013 민족사관고등학교 향토문화유적지답사 / 08:30~ / 황성군 향토문화유적지
〈**강동문화원**〉제2회 둔촌백일장 / 일자산 자연공원
〈**의령문화원**〉영제시조발표회 /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실
〈**칠곡문화원**〉제46회문예백일장 우수작품 전시회 / 6월 중 / 칠곡문화원
〈**무주문화원**〉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 6월 중 / 무주문화원
〈**무주문화원**〉반딧불축제 / 6. 1~6. 9 / 무주예체문화관

6월 3일(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2013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 사업 1차(실무진) / 6. 3~6. 6 / 중국 북경 일대
〈**동두천문화원**〉역사문화탐방 / 전라남도 담양일원

6월 4일(화)

〈**성북문화원**〉제4회 성북천 팔랑거리의 상상전 / 6. 4~6. 27 / 성북천 일대
〈**강릉문화원**〉엔조이 국악교실(제1회차) / 6. 4~5 / 예맥아트센터
〈**대구 달성문화원**〉제26회 미술, 제27회 서예실기대회 / 6. 4~5, 7일 (3일간) / 달성문화원 일원

6월 6일(목)

〈**충주문화원**〉제421주기 팔천고훈위령제 / 탄금대 팔천고훈위령탑

6월 8일(토)

〈**의왕문화원**〉제13회 의왕단오축제 / 10:00~ / 고천체육공원

6월 9일(일)

〈**창녕문화원**〉창녕청소년문화의집 현충시설 및 문화유적지 답사 / 6. 9(토) / 국립현충원
〈**충주문화원**〉제23회 김생전국회호대회 / 호암체육관
〈**서산문화원**〉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 산시 일원(3회)
〈**강릉문화원**〉한승정 다도회 '단오차 체험장' / 6. 9~16 / 단오행사장 내 체험장

6월 10일(월)

〈**성북문화원**〉제4회 역사문화특강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과 문화' / 성북 평생학습관
〈**제주문화원**〉제주문화원 57기 문화대학 유적답사 / 09:00~18:00 / 향파루리
〈**강릉문화원**〉제21회 '너도나도투호대회' / 6. 10~13 / 단오행사장 내 투호대회장

6월 11일(화)

〈**천안시동남구문화원**〉제29회 단오축제 / 아우내장터길 일원 및 공영주차장

6월 12일(수)

〈**경기도문화원연합회**〉2013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 사업 2차(원장) / 6. 12~19 / 그리스 아테네 및 에게해 일대

6월 13일(목)

〈**대전 대덕문화원**〉2013 계족산 무제 / 10:00~12:00 / 계족산 정상
〈**영양문화원**〉백일장 및 향토작가 추모사생대회 / 13:00~17:00 / 영양군민 회관 및 호국공원 일원
〈**울릉문화원**〉제15회 단오절 민속그네뛰기 / 나리분지야영장
〈**포항문화원**〉단오절 민속축제 / 해동근린공원
〈**거창문화원**〉제3회 단오학생씨름대회 / 거창스포츠파크
〈**거창문화원**〉제8회 거창단오제 및 전국한시시상백일장 시상식 / 거창스포츠파크
〈**대전 유성문화원**〉제17회 유성온천단오제 / 15:00~ / 두드림공연장
〈**태백문화원**〉낙동강 발원제 / 황지연못

6월 14일(금)

〈**제주문화원**〉향토문화 발전 세미나 / 14:30~18:00 / 제주하늬관광호텔
〈**충주문화원**〉제7회 호국보훈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 한국폴리텍대학 충주 캠퍼스
〈**거제문화원**〉제51회 옥포대첩기념제전 / 6.14~16 /옥포대첩기념공원

6월 15일(토)

〈**울산 중구문화원**〉단오맞이행사 / 동헌
〈**울산 중구문화원**〉도호부사 행차 퍼레이드 / 14:00~15:30 / 동헌 출발, 울산중구원도심일대
〈**청원문화원**〉제7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6.15~16 / 내수읍 초정리

6월 20일(목)

〈**양양문화원**〉제35회 양양한산문화제 / 6. 20~22 / 양양남대천둔지 및 부대 행사장

6월 21일(금)

〈**성북문화원**〉성북문화원 2013 학술회의 "근현대 성북지역의 독립정신과 호국활동" / 성북구청 4층
〈**노원문화원**〉제3회 문화유적지탐방 / 08:00 / 강원 철원
〈**충주문화원**〉제39회 탄금대기차지 나라사랑 웅변대회 / 충주문화원

6월 22일(토)

〈**양양문화원**〉제3회 강원도 양양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 10:00 / 양양문화 복지회관 대공연장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달빛문화기행 / 개운포성 및 병영성
〈**대전 대덕문화원**〉가족과 함께하는 대덕문화예술체험단 '우리동네 구석구석 역사캠프' / 6. 22~23, 1박2일 / 대덕구 장동 일원

6월 23일(일)

〈**서산문화원**〉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 서산시 일원 (4회)

6월 25일(화)

〈**강릉문화원**〉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견학 / 6. 25~28 / 남도권(미정)

6월 27일(목)

〈**강릉문화원**〉하슬라의 녹색어린이(제1회차) / 예맥아트센터

6월 29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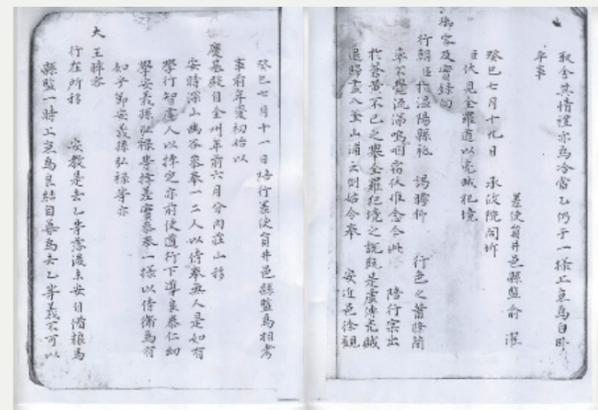
〈**대전 대덕문화원**〉가족과 함께하는 대덕문화예술체험단 '떠나자 숲으로 힐링을 위한 가족캠프' / 6. 29~30 1박2일 / 충남 논산일원

향토사 연구 논문 연작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 초기 피난과정 ④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를 중심으로

글 이용찬(정음문화원 사무국장)



다음은 기사년 7월 11일의 기사와 19일 기사를 사진으로 담은 것이다.

〈그림 2〉 기사년 7월 11일 배행 차사원(陪行差使員) 정음 현감(井邑縣監) 유탁(俞濤)이 상고(相考)한 글이다.

〈그림 3〉 기사년 7월 19일 승정원 개략(開略) 1)

이렇듯 『수직상체일기』를 기록했던 안의와 손홍록 두 선비는 위기에 처해있던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위기상황에서 구해내 내장산 일대에 이안시켜 370일 동안 수직하며 지켰을 뿐만 아니라 왕명에 따라 1차로 익산과 임천을 거쳐 아산, 강화부까지 사재를 털어 옮겼다. 이후 이들은 다시 정유재란이 발발하던 1597년 1월, 다시 아산으로 찾아가 묘향산 보현사까지의 멀고도 험난했던 2차 피난길을 주관했다. 그 당시 선조는 두 선비에 대한 고

마음을 눈물로 치하하고 각각 선교랑(宣敎郎)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와 선무랑(宣務郎)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를 제수했지만 두 선비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들이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이 당시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전쟁에 의병으로 나섰다하여 벼슬을 제수받거나 자신들의 공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자신들의 공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한 이야기들만 전해져 올 뿐이다.

아울러 이들이 당시 행재소에서 선조를 배알 했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왜군(倭軍)이 한성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의 전쟁 양상 역시 너무도 유동적인 상태였기에, 모든 정황을 감안하면 그들이 선조를 배알할 기회는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이에 대한 『호남절의록』의 기록은 “안의와 손홍록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실록을 묘향산 보현사로 옮겼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안의와 손홍록의 움직임은 호남절의록의 내용보다 빨랐다. 이들은 1596년(선조 29) 병신년 1월), 다시 한걸음에 아산에 도착했다. 또한 이때 안의를 대신해 한춘과 함께 실록과 태조 어용을 묘향산 보현사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며 다시 윤번으로 수직을 시작했다. 하지만 행군이 시작될 무렵 안의는 앞서 내장산에서의 야전 생활과 내장산부터 아산까지 이어졌던 긴 피난 여정의 풍찬노숙(風餐露宿)으로 인해 이미 중병이 들어 있던 관계로 더 이상의 행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당시 안의의 나이는 이미 68세의 고령(高齡)이었

다. 안의는 끝내 실록의 묘향산 보현사로의 이안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고, 고향인 태인으로 낙향했고, 그해 가을 임진왜란의 종식을 보지 못한 채 끝내 절명(絶命)하고 말았다.

안의와 헤어진 손홍록은 단독으로 안의의 식솔과 자신의 식솔, 그리고 한춘 등을 독려하며 행군을 시작했다. 묘향산으로 향하는 강행군은 정유년 1월 21일 강화부를 출발했다. 어용과 실록을 짊어지고 뱃길로 백령도(白翎島)를 거쳐 청천강을 거슬러 올라가 안주(安州)에 도착, 실록을 객사에 권안(勸安)했다. 이때 해주목(海州牧)에 있던 태조 어용도 안주(安州)에 도착해 무려 5년 만에 태조 어용과 조선왕조실록은 같은 장소에서 재회(再會)했다.

그 당시 안주에 머물고 있던 손홍록은 지방 고로(古老)들의 의견을 좇아 한춘과 더불어 영변(寧邊)에 들어가 실록과 어용을 묘향산 별전(別殿)에 봉안하고 보현사 승려들과 다시 윤번으로 수직에 들어갔다. 승려들과 윤번으로 돌아가며 수직을 서던 손홍록은 그 같은 사실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 자신은 실록을 수직하고 수복인 한춘을 조정에 보내 소식을 전하게 했다. 이때 선조는 궁중의 통례를 벗어나 일개 수복의 신분이던 한춘의 손을 부여잡고 울며 찬사를 보냈다. 그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안의와 손홍록이 그에 앞서 강서 행재소(行在所)에 머무르던 선조를 배알하지 못했을 추론은 더 현실이 된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당시 선조가 기뻐했던 거동은 어진과 실록이 관계된 사람을 유일하게 만난 사람은 한춘 뿐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뜻밖의 상황으로 임금을 배알하게 된 한춘은 왕과 악수(握手)를 하는 은총과 함께 현장에서 참봉 벼슬을 제수 받았던 것이다.²⁾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 자리에서 한춘은 모든 공을 끝까지 안의와 손홍록에게 돌리며 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훗날 어진이 경기전에 봉안될 당시에 한춘은 경기전 참봉으로 재직 중이었다.³⁾ 이를 역으로 해석해 보면, 『이재유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 공(功)이 미친 바가 아님이 없었다.”라는 내용은 확연하게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임진년 11월 이후 오희길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당시 참봉은 구정여(具廷呂)와 이도길(李道吉)이었지만 병신년 아산에서 강화부와 안주를 거쳐 묘향산에 이르는 동안의 피난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호종하는 참봉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있었다면 한춘이 관의 참봉을 제쳐 두고 어전에 나가갈 수 없었을 것이고, 참봉에 제수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VI. 맺음말

본래 전주사고의 실록은 경기전의 전신인 어용전(御容殿)이 1410년(태종 10) 지어진 이후 어진과 함께 성주사고와 함께 1439년(세종 21) 건립된 전주사고에 실록이 보관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전주는 조선왕조의 시작점인 태조의 선원지(璿源之地) 일뿐만 아니라 태조 어용을 봉안하던 경기전과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때문에 전주지역 백성들에게 경기전의 어용전(御容殿)과 실록각(實錄閣)은 어느 곳보다 중요했고, 그런 민심(民心)으로 인해 전주사고가 지켜지는 바탕이 되었다.

그것은 “전주부는 곧 한(漢)나라의 이른 바 풍포(豐浦)인데 게다가 진전(眞殿)이 가까이 있으니 원묘(原廟)⁴⁾와 같은 곳이다. 이 종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를 알리기 위한 때문이라고 핑계하니, 왕도(王都)와 전주를 동일시하는 것이라. 어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⁵⁾라는 내용처럼 전주 경기전의 역사는 1410년(태종 10) 처음부터 전주 사람들에 의해, 이미 승하(昇遐)한 태조의 용안(龍顏)을 잊지 않게 해달라며, 태조 어진의 전주 봉안(奉安)을 조정에 의뢰했고, 왕실이 그것을 받아드림으로 시작되었다. 태조의 선원지(璿源之地)인 전주 백성들의 염원을 들은 조정에서는 왕실의 변함없는 전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전주에 경기전을 짓게 하고 태조 어진을 봉안⁶⁾토록 한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袞龍袍)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지만 군주(君主)의 위엄과 권위는 초상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기록인 실록 보다 왕의 어진을 더 크게 중시했다. 태종은 자신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할 수 있는 전각을 짓게 했고, 어진을 봉안하는 곳의 이름도 어용전(御容殿)이라 명명했다.

현재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정음에서 지켜졌던 것을 1763년(영조 39)에 1차 수리를 거쳐 고종 9년(1872)에 다시 어진화사(御眞畫師)⁷⁾로 활동하던 조중묵(趙重默)을 통해 고종이 모사케 했던 것이 현재의 경기전에 유일하게 남겨 된 보물 제931호다. 현대까지 남아

2) 국역 경기전의 『완산지』인용 기록. 3) 『완산고을의 맥박(脈搏)』, 『왕조실록을 보전하는데 수훈을 세운 안의, 손홍록』, 본문.

4) 정묘(正廟) 이외에 따로 세운 종묘(宗廟). 5) 완역(完譯) 완산지(完山誌) 97쪽. 6) 태종실록(太宗實錄) 26권, 13년 9월 갑오(甲午)일 기록.

7) 어진화사(御眞 畫師) : 어진을 그리는 화원으로 왕의 용안(龍顏)을 담당하는 집필화사와 용체(龍體)를 담당하는 동참화사, 수종 화사(隨從 畫師)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제직에 참여하는 화원 수는 모두 10~15명이었다.

1) '개략'은 봉한 문서나 편지를 뜯어서 열어보라는 뜻이며, 문서나 편지의 겹봉에 쓰는 단어이다.

있는 태조의 어진은 '크기 220×151cm에 견본채색(緞本彩色)'으로 태종 10년(1410)에 처음 그려져 모두 여섯 곳에 어진을 봉안했다. 임진왜란 이후 태조의 어진은 광해 6년(1614)에 다시 경기전으로 돌아와 봉안되었다가 숙종 14년(1688) 경기전의 어진을 서울로 옮겨 이모(移摸) 한 뒤 이전 것은 불태우고 새 어진을 다시 경기전에 봉안했고, 또 다시 고종 9년(1872) 역시 경기전에서 받들던 어진이 낡고 헤어짐에 따라 서울에서 받들던 어진을 또다시 이모해 경기전에 봉안했던 것이 현재까지 남게 된 것이다. 어진을 보관하던 곳은 태종 재위 당시에는 어용전(御容殿)으로 불렸지만 세종 때 현재의 경기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함께 선조는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고, 성난 백성들은 춘추관(春秋館)으로 달려가 몽진(蒙塵)을 떠난 군주에 대한 불만을 방화로서 표현했다. 이로 인해 춘추관 사고에 보관돼 있던 실록은 허무하게 잿더미로 변했다. 충주사고의 실록 역시 왜군의 충주성 함락과 함께 전소(全燒)됐고, 그런 시대적 상황을 지켜보던 정읍 선비들은 전주 경기전 사고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과 은봉암, 비래암 등지에 옮기며 지켰다. 하지만 이들의 수훈(垂訓)은 오늘 날 어느 공적서(公的書)나 공신록(功臣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이 600여년의 오랜 세월에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역사 속기록 사랑이야기』⁸⁾는 “손흥록과 안의는 관인 신분이 아님에도 기술을 이끌고 실록과 어진을 정읍 내장산에 옮겨 1년 동안 수직하였고, 내장산을 떠나 묘향산으로 옮겨질 때에도 같이하였다.”⁹⁾고 소개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정읍 내장산에서 지켜졌던 실록은 조선의 태조부터 명종에 이르는 약 2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초기의 기록이 당시에 지켜지지 못했다면 현재의 기록문화유산역시 반 토막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록이 피난되던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람직한 역사적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400여 년 동안 흘러왔고, 초기 내장산에서 실록과 어진이 지켜졌다는 용굴암과 은봉암, 비래암의 위치 역시 현대인에게 잊혀진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안의와 손흥록 두 선비가 남긴 『수직상체일기』는 지역에서 향토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록과 어진이 보관됐던 은봉

암과 비래암은 꼭 찾아야 하는 숙제로만 남아 있었다. 김기빈은 저서⁹⁾ 『한국의 지명유래』에서 “내장산은 '산 안에 모든 것을 감추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설명하고, “이름과 현실이 가장 적절하게 부합된 좋은 경우가 바로 정읍 내장산”이라고 밝힌 것처럼 내장산은 언제나 숨은 역사가 간직되어 있었을 뿐 그 안에 감추어진 숨은 비밀을 풀어내고자 했던 노력들은 미미했었다.

이에 필자는 혼자서라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조선왕조실록과 어진의 피난처를 찾기 위해 지난 2010년 9~12월까지 4개월 여 동안 정읍에서 구전되던 내용들을 토대로 실록과 어진이 보관됐던 옛 은봉암과 비래암의 추정지를 찾아 나선 적이 있다. 그러던 지난 해 11월 용굴암의 아래쪽 지형에서 은봉암의 유력한 추정지를 찾아냈고, 연이어 현재의 용굴로 불리는 용굴암 추정지 위쪽에서 비래암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암자 터를 발견한 바 있다.

1차로 찾은 은봉암의 유력한 추정지는 옛 산길로 용굴과 이어져 있었지만 숨은 봉우리라는 이름만큼이나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봉우리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2차로 찾은 비래암의 유력한 추정지는 용굴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는 험준한 지형에서 발견됐다. 비래암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산 전체가 가파른 암벽으로 둘러져 있어 1주일 여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다 용굴암 맞은편 산에 올라서서야 비로소 비래암의 추정지를 찾을 수 있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신선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금선폭포 인근 지역으로 속인들이 함부로 훔쳐볼 수 없도록 신선들이 바위에 기름을 발라 현재까지도 모든 바위들이 미끄럽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곳이다. 비래암의 유래 역시 날비(飛), 올래(來) 자를 쓰는, 신선이 날아서 오는 암자라는 뜻을 지녔던 곳이다.

400년 여 년 전 어진과 실록이 보관되고 『수직상체일기』가 쓰이던 현장이 아직도 사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있다. 정읍 선비들이 전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난의 상황을 타계해 나가고자 했던 역사의 현장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역사 교육의 산실로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현장이 사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관심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실록과 어진의 명확한 피난 출발일자 와 도착 일자 등 초기 실록 피난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 

8) 국가기록원 『역사 속기록 사랑이야기』 실록지킴이 '오희걸, 손흥록, 안의,

9) 김기빈 : 『한국의 지명유래』, 저자.

제2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공모요강

공모부문 및 소재

- **공모부문**
 - 가. 향토문화논문부문 나. 향토문화자료부문
 - 다. 향토문화콘텐츠부문(스토리텔링)-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다큐멘터리 제작용 시나리오

- **공모소재** : 역사, 문화유산, 자연, 지리, 민속, 구비전승, 설화, 민담, 인물, 생활풍속, 음악, 과학기술 등 지역과 연계된 모든 것

- **응모마감 및 수상작 발표**
 - 접수기간 : 2013년 8월 1일~31일
 - 수상작 선정발표 : 2013년 10월 경

응모자격

- **지원자격** : 향토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학생,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능, 박사학위자 응모가능
 - ※ 단 2명 이상 공동연구일 경우 팀으로 응모할 것
- **지원제한** : 본 공모전에 최근 3년(10.11.12)간 대상을 수상한 자

제출형식 및 분량

구분	제출형식
논문부문	논문원고
자료부문	자료원고
콘텐츠부문	1. 시나리오, 2. 트리트먼트(텍 1)

※ 트리트먼트란? 완성된 시나리오의 밑그림 단계, 통상 대사 없이 씬 구분과 지문만으로 구성됨

- **분량**
 - 논문부문/자료부문 : A4 20장 이내(논의 진행상 불필요한 자료는 가격적 배제)
 - 애니메이션은 단편 기준 20분 이내 분량의 시나리오 제출
 - 만화·웹툰경우 특별한 제한 없음(대본 또는 작화 제출 가능)
 - 다큐멘터리의 경우 30분 이내의 방송용 시나리오 제출
 - 트리트먼트 제출시 : A4용지 10장 내외

- **작성요령**
 - A4용지, 본문글자크기 11, 줄간 160, 여백(위 35, 아래 30, 좌우 30) 본문 후면영조체(제목은 제외)
 - 작성 프로그램 : 한글(한글과 컴퓨터)
 - ※ 논문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kccf.or.kr> 사업공고에 '제2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안내'의 첨부파일 참조

제출서류 및 접수

- **제출서류**
 - 공통 : 공모신청서 1부
 - 논문/자료 부문 : 원고파일(CD 또는 USB), 출력물 2부(원고),
 - 콘텐츠부문 : 출품작파일(CD 또는 USB)/작품소개서, 시범시스, 작품본문(시나리오, 트리트먼트)을 합본하여 사본 3부 제출
 -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 공모신청서 및 작품소개서(콘텐츠만 해당)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12층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담당자(문의 02) 704-2312

시상 내역

부 문	시 상	상 금	비 고
부문 없음	대상(국무총리상)	5백만원	1편
향토문화 논문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백만원	1편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1백만원	1편
	특별상(국사편찬위원회상)	1백만원	1편
향토문화 자료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백만원	1편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1백만원	1편
향토문화 콘텐츠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백만원	1편
	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1백만원	1편
합계		1천5백만원	8편

유리사항(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응모작의 경우에는 무료로 처리함)

- 국내외 이미 단행본과 논문으로 발간·제작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응모작일 경우
- 본인의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논문(사료)을 모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
- 자기 표절일 경우(본인의 논문을 재편집하거나 그대로 인용한 경우)
- 신청서에 학위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등
- ※ 수상 이후라도 위의 유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상장과 상금 회수
- ※ 당선작의 저작권신권 일체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입상일로부터 3년간 소유. 단 응원콘텐츠 제작 시, 원작자의 저작권권 인정